

전략은 보이지 않는 점수다.
이제 전략을 높여라!



Chapter 02

2011 입시 판도 전망과 정시 지원 전략

- I. 2011학년도 정시 모집, 치열한 입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 II. 2011 정시 모집, 지금부터 준비하라.
- III. 2011 정시, 다양한 변수를 점검하라.
- IV. 최종 합격까지 필승전략이 필요하다!
- V. 실전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라.

I. 2011학년도 정시 모집, 치열한 입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① 수능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전년 대비 34,393명(5.1%)이 증가한 712,227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최근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하였다.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9,445명이 증가하였지만 졸업생 응시 인원이 24,002명 늘어나 재수생의 강세가 예상된다.

[표 1-1] 2011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

학년도	합계	자격별			성별	
		재학생	졸업생	검정 등	남	여
2011	712,227	541,881	154,660	15,686	379,385	332,842
	(100%)	(76.1%)	(21.7%)	(2.2%)	(53.5%)	(46.5%)
2010	677,829	532,432	130,655	14,742	358,143	319,686
	(100%)	(78.5%)	(19.3%)	(2.2%)	(52.8%)	(47.2%)
증감	34,393	9,445	24,002	946	21,243	13,150

선택 영역별 수능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수리 '가' 형을 선택한 수험생은 8,384명 늘었고, 수리 '나' 형은 22,316명 증가하였다. 또한, 사탐이 19,099명 증가하고, 과탐이 18,728명 증가했는데 이는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 수리 '나' 형을 선택하고 과탐을 응시한 수험생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수리 '나' 형+과탐형 응시 인원이 1만 명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리 '나' 형 응시자의 지원이 허용되는 자연계열 학과와 인문계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 선택 영역별 수능 응시자 수

학년도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가'형	'나'형		사탐	과탐	직탐	
2011	711,313 (99.9%)	151,889 (21.3%)	515,202 (72.4%)	708,783 (99.5%)	419,812 (58.9%)	241,486 (33.9%)	44,177 (6.2%)	128,024 (18.0%)
		667,091 (93.7%)			705,475 (99.0%)			
2010	676,953 (99.9%)	143,505 (21.2%)	492,886 (72.7%)	675,534 (99.7%)	400,713 (59.1%)	222,758 (32.9%)	49,735 (7.3%)	135,172 (19.9%)
		636,391 (93.9%)			673,206 (99.3%)			

② 따라서 수능 동점자 인원 증가로 합격선은 상승할 것이다.

본인의 원점수가 아닌 각 영역별 표준점수 및 백분위 성적은 상대평가에 의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능 점수 반영 방식은 수능 응시자가 많아지게 되면 표준점수 및 백분위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이 늘어나게 되어 지난해보다 각 대학의 합격자 성적보다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2010학년도 전체 수능 응시자는 638,216명으로 2009학년도에 비해 78,741명(14.1%)이 많았다. 이를 응시 계열별로 분류해 보면 연수외사 기준으로 358,689명, 연수외과 기준으로 218,462명이었다. [표 I-2]의 선택 영역별 수능 지원자 수를 토대로 2011학년도 응시 인원을 추정한다면 연수외사 응시 인원은 376,982명, 연수외과 229,604명으로 추정된다. 백분위 산출 방식의 특성상 동일 백분위 기준 인원은 비슷한 비율이기 때문에 2010학년도 대비 2011학년도 동일 백분위 합(400점 만점 기준)에 따른 누적 인원은 다음 [표 I-3]과 같이 추정된다.

영역별 백분위 합(400점 기준)에 의한 누적 인원은 최상위 성적에 해당하는 백분위 390점(평균 97.5)은 2009학년도 대비 연수외사 조합의 경우 155명, 연수외과 조합의 경우에는 56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백분위 평균 320점(평균 80)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누적 인원 증가로 정시 합격선을 예상해 본다면 지난해 300점대에서 합격선이 이루어진 대학은 2011학년도의 경우에는 31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3] 동일 백분위 합 대비 누적 인원(2010학년도 vs 2011학년도)

백분위 합	연수외사			연수외과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차이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차이
390	3,030	3,185	155	1,099	1,155	56
380	11,555	12,144	589	4,456	4,683	227
370	21,262	22,346	1,084	8,700	9,144	444
360	30,980	32,560	1,580	13,697	14,396	699
350	40,643	42,716	2,073	19,208	20,188	980
340	50,266	52,830	2,564	24,937	26,209	1,272
330	60,065	63,128	3,063	31,232	32,825	1,593
320	69,851	73,413	3,562	37,742	39,667	1,925
310	79,702	83,767	4,065	44,547	46,819	2,272
300	89,541	94,108	4,567	51,680	54,316	2,636

③ 정시 모집 정원도 크게 감소하였다.

앞서 [표 I-1]의 2011학년도 수능 응시자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삼만여 명 이상 증가하였다. 더구나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60%가 넘는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므로 그만큼 정시 모집 인원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보다 만 명 이상이 감소한 146,94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시 모집에서는 유래 없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리 영역 시험 범위 확대 등 입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재수도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안정 지원 추세로 흐름 가능성이 높다.

[표 I-4] 2008~2011학년도 정시 모집 선발 인원

구분	대학수(교)	모집 인원(명)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
2008학년도	199	181,014	47.9
2009학년도	200	166,570	44.0
2010학년도	199	158,625	41.2
2011학년도	199	146,942	38.4

주1) 2011학년도 모집 인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수시 보도 자료의 인원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과 다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시 모집의 합격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수시 우선선발 전형의 영향으로 수능 우수자도 다수 합격할 것이다.

201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50% 이상을 수능 우선선발 전형을 통해서 수능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들을 수시에서도 선발하고 있다.

기존 다른 수시 모집의 합격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 합격생에 비해 수능 성적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2008학년도 이후 도입된 수시 우선선발로 인해 정시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대거 수시 모집에 합격하고 있다. 특히 201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수능 우선선발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표 1-5] 2011학년도 수시 모집 수능 우선선발 실시 대학

대학명	전형 유형	우선선발 모집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고려대	일반 전형	718명	논술 100%	-경영대학, 자유전공, 정경대학 : 연수의 모두 1등급 -기타 인문 : 수리(가/나) 1등급, 언어, 외국어 중 1개 영역 1등급 -자연 : 수리(가) 1등급, 나머지 3개 영역 중 1개 영역 1등급 -의과대학 : 수리(가) 1등급, 외국어 1등급, 언어 또는 파탐 1등급
성균관대	일반 전형	610명	논술 100%	-인문 :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합 4 이내 -자유전공,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 연수의 모두 1등급 -자연 : 수리(가), 파탐 등급 합 3 이내
연세대	일반 우수자	805명	학생부 20%+논술 80%	-인문 : 연수의 모두 1등급 -자연 : 수리(가), 파탐(2개 과목 이상) 모두 1등급
한양대	일반 우수자	579명	학생부 20%+논술 80%	-인문·상경계 : 연수의 등급 합 4 이내 -정책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 연수의 모두 1등급 -자연 : 수리(가), 외국어, 파탐 등급 합 4 이내 -융합전자공학부, 에너지공학과 : 수리(가), 외국어, 파탐 모두 1등급
이화여대	학업 능력 우수자	200명	교과 90%+비교과 10%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

주) 연세대는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인문계는 연수의 등급 합 4 이내, 자연계는 수리(가), 파탐 등급 합 3 이내로 선발함.

[표 1-6] 수능 우선선발 최저 학력 기준 해당 인원(추정)

구분	해당 대학	해당 인원
언어, 수리, 외국어 모두 1등급	고려대(경영대학, 자유전공, 정경대학), 연세대 인문계열, 한양대(정책, 파이낸스경영)	5,958명(0.93%)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합 4	성균관대 인문계열, 한양대 인문·상경계	13,778명(2.16%)
수리 가 형 및 파탐(2과목 이상) 모두 1등급	연세대 자연계열	2,687명(0.42%)
수리 가 형 및 나머지 1개 영역 1등급	고려대 자연계열(의과대학 제외)	4,438명(0.7%)
수리 가 형 및 외국어 1등급, 언어 또는 파탐 1등급	고려대 의과대학	2,212명(0.35%)

주1) 2010학년도 수능 응시자 638,216명 기준임.

주2) 고려대 의과대학 기준에 해당하는 언어 또는 파탐 1등급 인원은 산출이 어려워 수리 가 형 및 외국어 1등급 성적 대상자만 선정함.

(2) 수시 모집 중복 합격자가 늘어 정시 인원이 증가할 것이다.

상위권 대학의 정시 모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시 모집의 가장 큰 변화 중 2010학년도 대학입시는 2009학년도까지 같은 날짜에 실시되었던 고려대와 연세대가 다른 날 대학별 고사를 치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려대, 연세대에 모두 합격하는 중복 합격자가 다수 발생하여 정시 모집으로 많은 인원이 이월되었다.

2011학년도에는 고려대 70%, 연세대 80% 등 각 대학들이 수시 모집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그만큼 중복 합격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추후 대학들의 늘어난 정시 인원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표 1-7] 2010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대학명	전체 정원	선발 계획 인원		실제 모집 인원		이월 규모	
		모집 인원(명)	비율(%)	모집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고려대	3,772	1,783	47.3%	2,132	56.5%	349	9.3%
서강대	1,629	609	37.4%	817	50.2%	208	12.8%
서울대	3,116	1,264	40.6%	1,409	45.2%	145	4.7%
성균관대	3,641	1,355	37.2%	1,897	52.1%	542	14.9%
연세대	3,422	1,331	38.9%	1,755	51.3%	424	12.4%
이화여대	3,114	1,118	35.9%	1,757	56.4%	639	20.5%
중앙대	2,655	1,567	59.0%	1,943	73.2%	376	14.2%
한양대	2,899	1,245	42.9%	1,887	65.1%	642	22.1%

④ 탐구 영역의 반영 과목 축소로 합격선 상승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듯 탐구 영역의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능 준비 과정에서는 수험생들의 부담감이 감소될 수는 있지만, 실제 정시 지원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대학입시의 특성상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면 합격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제 탐구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얼마나 합격 성적이 높아질까?

지난해 주요 대학에 합격한 메가스터디 회원들을 대상으로 탐구 과목이 줄어들었을 때의 성적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주요 대학 2010학년도 합격자 기준 사탐 과목 수 변화에 따른 점수 차이

대학명	모집단위명	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탐 3과목 평균	사탐 2과목 평균	상승 점수
경희대	경영학부	94.5	93.2	94.3	91.2	93.6	2.5
고려대	경영대학	97.2	98.7	98	96.8	98	1.3
서강대	경영학부	96.6	98.1	97.9	95.8	97.5	1.7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93.2	96.4	94.4	90.2	94.1	3.9
성균관대	경영학부	94.1	97.9	97.1	96.3	98.1	1.9
연세대	경영학과	98.4	99.2	99.2	97.4	98.6	1.2
중앙대	경영학부	91.6	94.8	94.2	94.4	96.5	2.1
한국외대	경영학부	92	92.7	98	89.5	93.7	4.2
한양대	경영학부	93.1	97.7	96.1	94.4	96.3	1.9

위의 표에 기재된 대학들은 지난해까지 탐구 영역을 모두 3과목으로 동일하게 반영하였지만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2과목으로 축소된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의 메가스터디 회원 기준 합격자 성적을 탐구 3과목 평균과 2과목 평균으로 비교를 해본 결과 2과목을 반영했을 경우 백분위 기준으로 1.2~4.2점까지 성적이 상승되었다.

2011학년도에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탐구 2과목 위주로 집중 학습을 하여 성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격자들의 탐구 영역 성적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점수를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은 탐구 영역의 환산점수에 따른 점수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과목 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동점자도 상당 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3과목을 평균하여 산출할 경우 2과목일 때보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능 동점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능 이외의 학생부 성적 등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⑤ 지난해보다 수능이 어려워져 상위권의 경우 변별력이 확보될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다. 그런데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되면 수험생들 간의 점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하지만 올해 수능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어렵게 출제되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등급 이하의 대다수 수험생들은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등급 구분 점수의 차이가 매년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1 학년도 대학입시와 같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줄고 수험생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표 1-9】 2007~2010학년도 수능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

(원점수 기준)

등급	언어			수리 '가'			수리 '나'			외국어		
	2007	2009	2010	2007	2009	2010	2007	2009	2010	2007	2009	2010
1	95	92	94	89	81	89	96	79	91	96	95	92
2	91	86	89	81	72	81	84	68	83	91	89	85
3	86	79	84	71	63	71	72	55	70	82	79	75
4	78	71	76	61	53	62	53	42	49	69	69	64
5	67	61	67	50	42	51	34	28	30	56	55	50

【표 1-10】 최상위권의 점수 변화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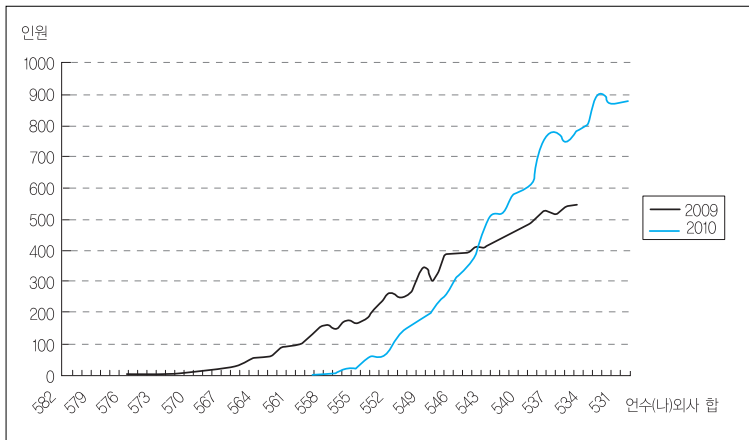
구분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체	
			가형	나형				언수외사	언수외과
2009학년도	만점자	140	154	158	136	148	139	582	569
2010학년도		134	142	142	140	143	143.5	559	559.5
차이		▼6	▼12	▼16	▲4	▼5	▲4.5	▼23	▼9.5
2009학년도	1등급 컷	131	135	138	131	135	133	535	530
2010학년도		128	132	135	133	134	134	530	527
차이		▼3	▼3	▼3	▲2	▼1	▲1	▼5	▼3

주)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는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4개 과목을 기준(사탐 : 사회문화, 한국지리, 근현대사, 윤리 과탐 : 물리 I, 화학 I, 생물 I, 생물 II)으로 200점 만점으로 환산.

【표 I - 10】을 보면 수리 영역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던 2009학년도에는 4개 영역의 총점 합 기준으로 표준점수 만점자와 1등급 컷의 점수 차이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47점, 자연계열은 39점에 달했지만 2010학년도에는 인문계열 29점, 자연계열 32.5점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점수대가 낮아질수록 동점자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수능 성적이 평균 1등급 이

내인 수험생들의 통계를 보면 어렵게 출제되었던 2009학년도에는 점수가 동일한 수험생들의 숫자가 550명 이내였지만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표준점수 합이 531점이었던 수험생들의 숫자는 900명이 넘었다. 지난해보다 최상위권의 동점자 수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201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2009학년도보다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동점자 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9·2010학년도 점수대별 분포 비교



⑥ 하지만 치밀한 지원 전략을 세운다면, 수능 10점도 만회할 수 있다. ■ - 합격자 하위 80% 성적으로 입학하자.

매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난 후 각 대학별 합격자 발표가 시작되면 수험생들은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특히 최초로 합격 발표를 하였을 때 합격 대상 학생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기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대 및 주요 의과대학 등 최상위 대학에 최초로 합격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아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비 합격의 통지를 받은 후 추가 합격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시 모집에서는 가·나·다 군 복수 합격자로 인한 추가 합격이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가 합격으로 인해 실제 각 대학의 학과별 합격자의 성적은 점수 편차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

[표 I -11]과 같이 2010학년도 성균관대 '나'군의 합격자 성적을 점수대별로 살펴보자. 지난해 사회과학계열 최초 합격자의 합격자 평균 성적은 546.1점(800점 만점 기준)이었고 545점 이상은 28명(35%)이었다. 그런데 최종 등록자 중 545점 이상은 11명(14%)에 불과하였다. 17명

(21%)은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하여 등록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최종 등록자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15%는 545점 이상의 성적이었지만 하위 15%는 539점대 이하로 상위 15% 성적대에 비해 6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난다. 자연계 공학계열의 경우 최종 등록자의 점수 차이는 더욱 컸다. 상위 20%는 518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최종 등록을 하였지만 하위 20%는 509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정시 모집에서 치밀한 지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한다면 본인의 부족한 수능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1】 성균관대 최초 합격자 vs 최종 등록자 성적 비교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나' 군)				
표준점수 3+1(800점) 기준	최초 합격자(80명)		최종 등록자(82명)	
	도수	누적 인원(비율)	도수	누적 인원(비율)
569~572				
566~569	1명	1명(1%)	1명	1명(1%)
563~566	1명	2명(3%)		1명(1%)
560~563	1명	3명(4%)		1명(1%)
557~560		3명(4%)		1명(1%)
554~557		3명(4%)		1명(1%)
551~554	2명	5명(6%)	2명	3명(4%)
548~551	4명	9명(11%)	1명	4명(5%)
545~548	19명	28명(35%)	7명	11명(14%)
542~545	28명	56명(70%)	23명	34명(43%)
539~542	22명	78명(98%)	24명	58명(73%)
536~539	2명	80명(100%)	22명	80명(100%)

성균관대 공학계열('나' 군)				
표준점수 3+1(800점) 기준	최초 합격자(180명)		최종 등록자(185명)	
	도수	누적 인원(비율)	도수	누적 인원(비율)
536~539	1명	1명(1%)		
533~536	1명	2명(1%)		
530~533	2명	4명(2%)		
527~530	2명	6명(3%)		
524~527	15명	21명(12%)	2명	2명(1%)
521~524	38명	59명(33%)	12명	14명(8%)
518~521	61명	120명(67%)	25명	39명(21%)
515~518	51명	171명(95%)	44명	83명(45%)
512~515	7명	178명(99%)	32명	115명(62%)
509~512		178명(99%)	35명	150명(81%)
506~509	2명	180명(100%)	26명	176명(95%)
503~506			7명	183명(99%)
500~503			2명	185명(100%)

Ⅱ. 2011 정시 모집, 지금부터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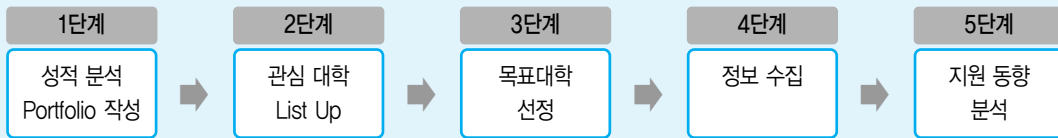
①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자신의 가채점 성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어차피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성적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가채점이 무슨 소용이야.’라고 생각하고 가채점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수능 가채점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이루어지는 정시 지원뿐만 아니라 수시 2차 지원의 응시 여부를 결정짓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채점 등 본인의 성적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채 특정 대학을 수시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 통지서를 받는다면 정시 모집에서 그보다 나은 대학에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정시 모집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남은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가채점 분석을 하지 않아서 수시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좋은 지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가채점을 위해서는 본인의 영역별 원점수를 정확하게 채점한 후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 가채점 결과 및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예상 백분위를 산출해 보아야 한다. 각 대학들은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반드시 표준점수와 백 분위 점수로 산출해 놓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채점 분석 이후 해야 할 일

- 개인별 성적 분포 포트폴리오 작성, 수시 2차 지원 여부 결정
-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 맞는 관심대학 List Up
- 모집 군별 2~3개 목표대학 선정하기
- 목표대학의 입시 결과, 합격선 등 관련 정보 수집
- 입시 변수 및 지원 동향 분석



② 만약 가채점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남은 수시 2차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려라.

[표 II-1]은 수능 이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이다. 지난해에는 80개 대학들이 수능 이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였지만 2011학년도에는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만이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를 실시할 뿐이다.

이들 대학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 자신의 수능 성적을 우선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 수능 결과에 따라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를 마친 수시 모집의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와 수능 이후 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수시 모집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수능 이후 원서를 접수하는 수시 모집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수험생들의 지원이 대거 늘어나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2~3개 대학을 정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되, 정시 모집 지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I-1] 수능 이후 원서 접수 실시하는 주요 대학

월	일	대학명
11월	22일(월)	가톨릭대(2차), 경기대(2차), 국민대(2차), 명지대(3차)
	23일(화)	건국대(서울/2차), 경원대(2차), 광운대(2차), 단국대(2차), 덕성여대(2차), 동덕여대(2차), 성신여대(2차), 숙명여대(2차), 숭실대(2차)
	24일(수)	아주대(2차), 이화여대(2차), 한국항공대(2차)
	25일(목)	동국대(서울/2차), 서울시립대(3차), 한성대(2차)

수시 모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우선 학생부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남아 있는 학생부 100%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등은 학생부 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다만, 숭실대 자연계와 항공대의 경우 수능 1개 영역 2등급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학생부 중심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표 II-2] 수능 이후 수시 모집 원서 접수하는 학생부 중심 전형 실시 대학

대학명	전형 유형	전형 방법	원서 접수 기간
건국대	수능우선 학생부	교과 100%	11월 19 ~ 23일
경원대	교과 성적 우수자	교과 100%	11월 17 ~ 23일
광운대	교과 성적 우수자	교과 95%+비교과(출결) 5%	11월 19 ~ 23일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II	1단계 : 교과 90%+비교과(출결) 10%(8배수) 2단계 : 교과 45%+비교과(출결) 5%+면접 50%	11월 19 ~ 22일
덕성여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100%	11월 19 ~ 23일
동국대	학업 성적 우수자	교과 100%	11월 22 ~ 25일
동덕여대	일반 전형	교과 90%+비교과(출결) 10%	11월 19 ~ 23일
서울시립대	서울유니버시아드(3차)	교과 90%+비교과 10%	11월 19 ~ 25일
성신여대	일반 학생	교과 90%+비교과(출결) 10%	11월 20 ~ 23일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100%	11월 19 ~ 23일
아주대	학생부우수자2	교과 100%	11월 19 ~ 24일
이화여대	학업 능력 우수자	교과 90%+비교과(출석 및 봉사 활동) 10%	11월 22 ~ 24일
한국항공대	학업 우수자	교과 100%	11월 19 ~ 24일
한성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100%	11월 22 ~ 25일

학생부 성적이 불리하다면 논술이나 적성검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전형을 공략해 보자. 짧은 기간동안 대학별고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하다. 숙명여대의 경우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와 생활과학부는 수능 2개 영역 평균 2등급,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를 우선선발 조건으로 제시하여 모집 인원의 50%를 논술 100%로 우선선발한다. 반면 학생부 40%+논술 60%로 선발하는 일반선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전형의 경우에도 가톨릭대, 강원대, 고려대(세종), 한양대(에리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 밖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듯 다양한 수시 모집 전형을 잘만 활용한다면 의외로 수시 2차 모집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II-3】 수능 이후 수시 원서 접수 대학 중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대학명	전형 유형	모집 인원(명)	2010 경쟁률	전형 방법	대학별 고사 실시일
경기대	일반 학생	476	14.81	학생부 50%+논술 50%	11월 27일(토)
경기대(서울)	일반 학생	102	25.07		
단국대(죽전)	논술 우수자	376	신설	1단계 : 학생부 100% (8배수) 2단계 -우선선발(30%) : 논술 100% -일반선발(70%) : 학생부 40%+논술 60%	12월 4일(토)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510	28.63	일반선발(50%) : 학생부 40%+논술 60% 우선선발(50%) : 논술 100%	인문 : 11월 29일(월) 자연 : 11월 28일(일)
강남대	일반 전형	233	6.86	학생부 20%+전공적성 80%	12월 5일(일)
경원대	일반 전형	503	55.49	학생부 40%+전공적성 60%	12월 5일(일)
수원대	일반 전형	400	신설	학생부 50%+전공적성 50%	인문 : 11월 27일(토) 자연 : 11월 28일(일)
을지대(성남)	일반 전형	129	신설	학생부 50%+전공적성 50%	11월 27일(토)
가톨릭대	일반학생Ⅱ	194	49.24	전공적성 100%	11월 28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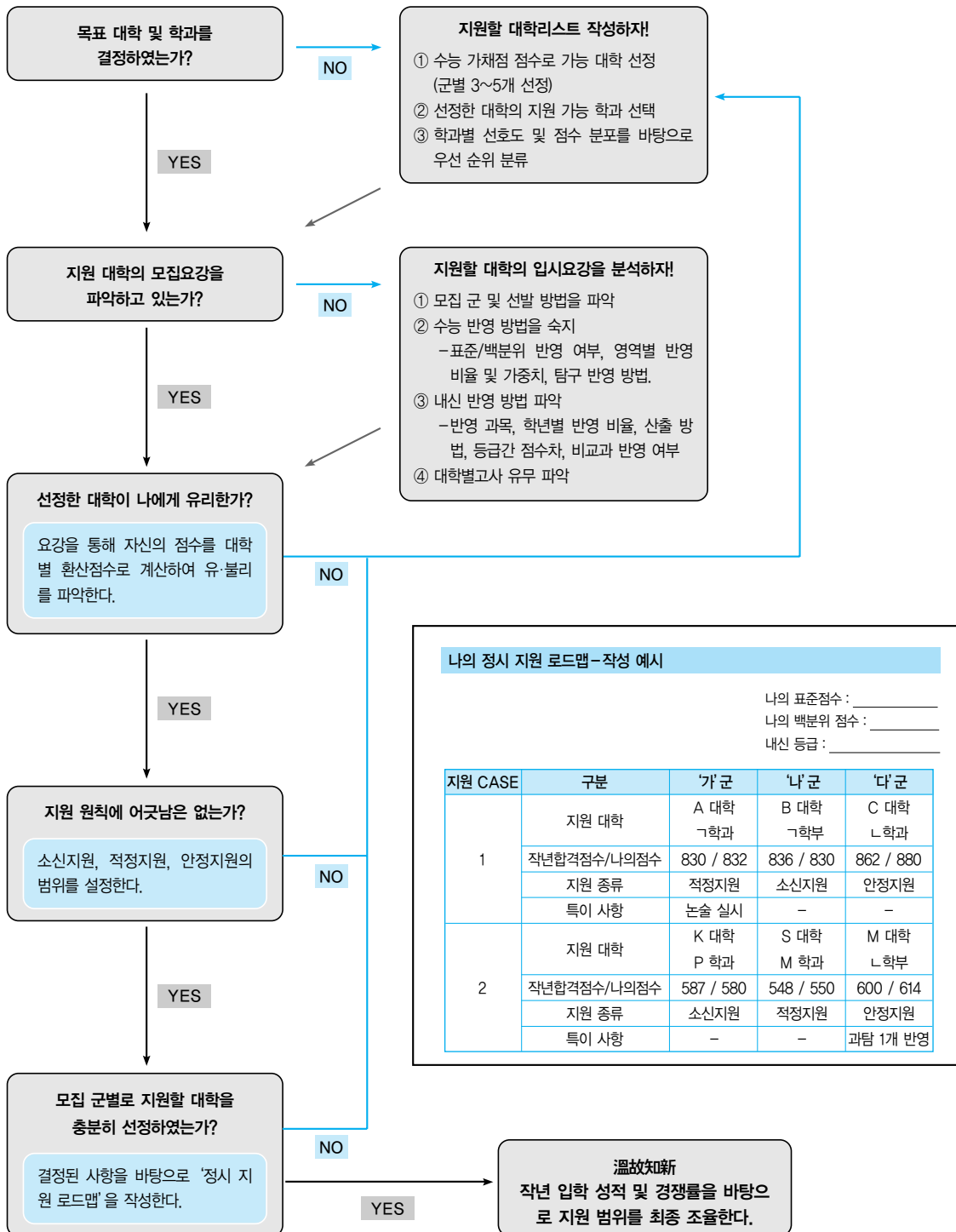
③ 치밀한 입시 분석을 통해 정시 모집 필수 전략을 세우자.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에 지원 전략 수립 계획을 세운다면 시간이 빠듯하여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정시 지원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메가스터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금부터 나만의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자.

[정시 지원 3대 원칙]

- ① 나의 성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 ② 지원의 원칙을 세워라.
- ③ 수능 준비만큼 입시를 세밀하게 분석하라.



(2)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라.

① 수능 준비보다 더욱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ex) -각 대학별 선발 방식의 이해

-지난해 결과를 분석하고 2011학년도 변경된 내용 숙지

-수능 응시생 증가로 인한 합격선의 상승 예측

② 모의지원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입시 관련 자료들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들로 더욱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버 공간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ex) -대학별 전형 방식(대학별 환산점수, 탐구 반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

-수능 점수 반영(표준점수, 백분위 등)에 대한 유·불리

-대학별 모집 군의 변화, 과거 경쟁률, 지원자 이동 등 전형 통계

합격예측리포트 | 모의지원 후에 펼쳐지는 3전3승의 합격 전략!



메가대 경영경제학부

[대학홈페이지 >>](#)
[입학홈페이지 >>](#)
[찾아가는길 >>](#)

[핵심모집정보](#)
[전체모집요강](#)
[지난입시결과](#)

정시 **가군** **주요** **1지망** **2지망** **3지망**

메가대 공지사항

본 대학은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산출식 변경, 선발 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이 곳에 해당 대학의 특이사항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 모의지원 경쟁현황

모집인원 구분	2011 모집인원	전년도 모집정원	전년도 경쟁률	전체 지원자 기준		1지망 지원자 기준	
				모의지원자	경쟁률	모의지원자	경쟁률
정시 [?]	11,922명	1,235명	12.7	2100명	31.1	100명	11.2
수시이월 [?]	19명	92명					
총인원 [?]	2,230명	-					

● 모의지원자 성적분석

나의 산출 총점

933.89
(만점: 1,000.00)

[산출결과 보기 >](#)

구분	1지망 지원자 기준					
	전체 현황				모집정원 내 현황	
	최고점	평균점	상위50%	상위80%	평균점	모의지원컷
점수	982.78	982.78	982.78	982.78	982.78	982.78
내 점수와의 차이	+89.22	+89.22	-89.22	-89.22	+11.22	+11.22

③ 유·불리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하자.

일단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반영 방법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학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변수는 그와 같은 대학 중에서 발생한다.

④ 반영영역별 유·불리 조합 결과 (일괄 합산 기준)							
구분	연수외+탐(4)	연수외+탐(3)	연수외+탐(2)	연외+탐(3)	연외+탐(2)	수외+탐(3)	수외+탐(2)
표준점수	-	562.33	565.00	408.33	411.00	422.33	425.00
순위	-	2	1	5	6	3	4
누적상위	-	0.05%	0.05%	0.18%	0.18%	0.16%	0.17%
백분위	-	392.00	393.00	292.00	293.00	292.00	293.00
순위	-	1	2	3	5	4	6
누적상위	-	0.33%	0.36%	0.69%	0.81%	0.76%	0.89%

주요 반영영역 조합결과

가장 유리한 조합

- 표준점수 : 연수외+탐(2)
- 백 분 위 : 연수외+탐(3)

가장 불리한 조합

- 표준점수 : 연외+탐(2)
- 백 분 위 : 수외+탐(2)

위 이미지는 '2011 정시 합격예측서비스 > '성적분석' 메뉴에서 제공되는 내용의 일부임

④ 다양한 입시 환경에 맞게 자신의 성적을 정확히 파악하라.

(1) 수능 가채점 분석, 이렇게 하자.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200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시험이 '3+1' 유형과 '2+1' 유형, '특이' 유형, 그리고 탐구 영역이 1~4과목 등으로 반영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능시험의 반영 방법은 동일한 총점('3+1' 유형 4과목 반영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시험 반영 형태에 따라 전체 석차에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영역 및 과목별 수능 성적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반영 방법을 적용하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지름길이다.

다음 사례들은 지난해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중 수능 '3+1' (4과목) 기준 표준점수 총점(510점)이 동일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반영 형태에 따른 석차 순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① 수능 총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영역을 찾아라.

■ 사회탐구 선택자로 표준점수 총점 510점인 경우-메가스터디 분석 결과 자료

다음 표를 참고하여 성적이 유리한 영역을 판단

▶ ○○○님의 수능 성적 결과입니다.

구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4개 영역 반영 총점(본인총점)
					탐구평균(2과목)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표준 점수	내점수	130	126	129	125	57	61	64	55	510
	동점자 평균	123	131	128	128	62	62	66	60	510
	유·불리	▲7	▼5	▲1	▼3	▼5	▼1	▼2	▼5	
영역별 예상석차(동석차 포함)		14,710	74,658	55,287	—	—	—	—	—	
영역별 응시자수		637,530	461,936	629,928	—	—	—	—	—	
백분위	내점수	98	85	92	86	71	80	92	67	361
	동점자 평균	90	91	91	89.5	83	84	95	82	361.5
	유·불리	▲8	▼6	▲1	▼3.5	▼8	▼4	▼3	▼15	
영역별 예상석차(백분위 기준)		14,710	74,658	35,414	—	—	—	—	—	
영역별 응시자수		637,530	461,936	552,503	—	—	—	—	—	
등급		2	3	2	—	—	—	—	—	

○○○님의 경우에는 동점자들 평균 성적에 비해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 및 외국어의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점수가 동일한 수험생들과 백분위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0.5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보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 유리해 보이며 탐구 영역의 반영 과목 수가 적은 대학일수록 유리한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② 수능 반영 형태(영역 수, 과목 수)에 따른 유·불리를 정확히 파악하라.

■ 동점자(표준점수 기준)와의 전형 유형에 따른 영역별 유·불리 비교

-본 성적 변화 비교표는 ○○○님과 유형별 총점(표준점수)이 같은 메가스터디 회원간의 영역별 유·불리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연수외+탐구(3)인 경우

구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연수외+탐(3) 선택시 유형 총점	지원 전략
				평균	선택1	선택2	선택3		
내 표준점수	130	126	129	121.3	57	61	64	506.3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국립대
동점자 평균	123	131	128	126.7	62	62	66	508.7	들이 탐구 3과목 반영, 하지만 본인의
유·불리	▲7	▼5	▲1	▼5.4	▼5	▼1	▼2	▼2.4	탐구 성적은 3과목 반영시 상당히 불리

■ 언수외+탐구(2)인 경우

구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언수외+탐(2) 선택시 유형 총점	지원 전략
				평균	선택1	선택2		
내 표준점수	130	126	129	125	61	64	510	대다수 중상위권 대학들의 반영 방법. 수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리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위주로 선택 ex) 숭실대, 가톨릭대 등
동점자 평균	123	131	128	128	62	66	510	
유·불리	▲7	▼5	▲1	▼3	▼1	▼2	—	

■ 언외+탐구(2)인 경우

구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언외+탐(2) 선택시 유형 총점	지원 전략
				평균	선택1	선택2		
내 표준점수	130		129	125	61	64	384	동점자 평균보다 5점이 낮은 수리 영역을 제외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 ex) 항공대, 성신여대 등
동점자 평균	123		128	128	62	66	379	
유·불리	▲7		▲1	▼3	▼1	▼2	▲5	

■ 수외+탐구(2)인 경우

구분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언수외+탐(2) 선택시 유형 총점	지원 전략
				평균	선택1	선택2		
내 표준점수		126	129	125	61	64	380	가장 유리한 언어 영역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조합
동점자 평균		131	128	128	62	66	387	
유·불리		▼5	▲1	▼3	▼1	▼2	▼7	

◎ 배치표 검색결과

요강 기준	모집 시기	대학명 모집단위	반영유형 활용지표	지원가능 관단 산출점수				지원자 수능 내신 합계	경쟁률 모집인원	
				전형총점 수능 내신 합계	배치점수 수능 내신 합계	나의 점수(차이) 수능 내신 합계				모의지원 성적산출
주요	가	메가대 가정교육과(인문)	언수외탐 표+백	500.00	455.84	468.43	12.59	모의지원	455.25	2.6 : 1 18 명
				400.00	399.92	399.92	0.00	다시산출	399.06	
				900.00	855.76	868.35	12.59		854.31	
주요	가	메가대 간호대학(인문)	언수외탐 표+백	500.00	453.92	465.61	11.69	모의지원	445.31	2.8 : 1 12 명
				500.00	499.90	499.90	0.00	다시산출	498.30	
				1,000.00	953.82	965.51	11.69		943.61	
주요	가	메가대 경영대학	언수외탐 표+백	500.00	482.14			다시계산	466.58	0.4 : 1 172 명
				500.00	499.90				499.39	
				1,000.00	982.04				965.97	
주요	가	메가대 교육학과	언수외탐 표+백	500.00	465.79	468.72	2.93	모의지원	455.39	0.3 : 1 25 명
				400.00	399.93	400.00	0.07	다시산출	399.06	
				900.00	865.72	868.72	3.00		854.44	
주요	가	메가대 국어교육과	언수외탐 표+백	500.00	473.66	468.72	-4.94	모의지원	457.72	3.0 : 1 22 명
				400.00	399.93	399.92	-0.01	다시산출	399.53	
				900.00	873.59	868.64	-4.95		857.25	

위 이미지는 '2011 정시 합격예측서비스 > '배치표' 에서 제공되는 내용의 일부임

(2) 학생부는 대학별 등급 간 점수 차이를 확인하라.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고 각 전형 요소의 중요도를 인식한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비율을 참고하기 마련인데, 이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각 고교간의 격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실제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치르는 수능은 점수 차이를 크게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전형 요소인 내신은 최고점과의 점수 차이를 미미하게 두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는 정시 모집 '가' 군에서 수능 600점+학생부 400점으로 선발한다. 수능은 각 영역별 백분위에 계열별로 반영하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곱하여 6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각 영역별 백분위의 합은 400이지만 600점으로 환산하게 되므로 1.5배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부 성적은 아래의 표와 같이 1등급과 5등급의 내신 점수 차이가 4점에 불과하다. 학생부 4등급인 수험생이 반영 비율이 높은 수능 한 개 영역에서 백분위 3 이상을 받으면, 학생부 1등급인 수험생보다 수능 성적이 높게 되어 역전이 가능하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학생부 성적 등급 간 점수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4】 대학별 학생부 등급 간 점수 차이

대학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차이(1등급-5등급)
동국대	400	398	396	394	392	388	360	320	272	8점
부산대	100	95	90	85	80	70	55	40	20	20점
서울대	50	47	44	41	38	35	32	29	26	12점
성균관대	280	279.8	279.4	278.8	278	277	272	264	250	2점
숙명여대	400	399	398	397	396	395	394	380	295	4점
송실대	300	298	296	294	290	282	266	246	220	10점
연세대	100	99.75	99.5	99.25	99	98	96	93	88	1점
인하대	50	48	45	40	35	25	20	15	10	15점
한양대	240	239.58	239.16	238.74	238.22	237.48	229.52	221.55	213.59	1.78점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험생들은 송실대 등 학생부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 위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학생부 성적이 나쁜 수험생들은 수능 100% 전형이나 고려대, 성균관대 등 내신의 점수 차이가 작은 대학 위주로 지원 전략을 세우면 된다.

또한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만 반영 교과 전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 과목 중에서 석차등급이 가장 높은 과목을 반영 교과별로 일부만 선택하여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이렇듯 각 대학별 산출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산출을 통해 유·불리를 점검하도록 하자.

Ⅲ. 2011 정시, 다양한 변수를 점검하라.

① 표준점수와 백분위 간의 유·불리를 정확히 이해하라.

2011 수능 성적표에는 응시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다만, 원점수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학에서도 수능 성적을 활용할 때 표준점수, 백분위를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채점한 원점수는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실제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을 가지고 정확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1) 원점수는 이제 잊어라.

표준점수 산출 공식에서 실제 산출된 표준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Z점수이다. 이 Z점수는 각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표준편차는 영역 내에서 원점수대별로 표준점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되어 본인의 취득 원점수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더 발생하게 된다. 아래식은 표준점수를 구하는 산출 공식이다. 해당 영역의 표준편차는 언어, 수리, 외국어는 20, 탐구는 10의 고정값을 가지며 평균의 경우에도 각각 100점과 50점의 값을 고정하여 부여한다.

■ 표준점수 산출 공식

표준점수 = (Z점수 × 해당 영역의 표준편차) + 평균

$$Z\text{점수} = \frac{X - m}{\sigma}$$

X : 수험생의 원점수

m : 해당 영역의 수험생 평균

σ : 해당 영역의 수험생 표준편차

[표 III-1] 2010학년도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평균/표준편차 및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급간

영역/과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최고점	최저점	급간
언어 영역		68.37	18.23	134	25	109
수리 영역	가형	55.60	20.47	142	46	96
	나형	44.99	26.50	142	66	76
외국어 영역		56.41	21.85	140	48	92

반면, 백분위는 본인의 성적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성적의 표준점수/백분위 성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 백분위 산출 공식

$$\frac{(\text{본인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의 수험생 수}) + (\text{동점자 수}) \div 2}{\text{전체 수험생의 수}} \times 100$$

(2) 원점수 합이 동일하여도 영역별 취득 점수에 따라 표준점수/백분위 성적 결과는 달라진다.

영역별 원점수 조합에 따라 실제 수능에서 반영되는 표준점수/백분위 성적은 달라지게 된다. 표준점수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가지고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의 값이 작은 영역의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반대로, 백분위는 수험생들의 영역별 석차를 통해 점수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는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의 점수는 조금 적게 받았지만 상대적인 등수는 높은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를 실제 2010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를 통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2010학년도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 비교

(인문계 기준)

구분	활용	언어	수리 '나'	외국어	합계
A수험생	원점수	96	62	82	240
	표준점수	130	107	123	360
	백분위	98	60	85	243
B수험생	원점수	70	92	84	245
	표준점수	101	135	125	361
	백분위	46	95	88	229

[표 Ⅲ-2]의 두 수험생의 성적표 중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성적만을 기록하였다. 탐구 영역에서는 과목별 유·불리가 더욱 크게 작용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치르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성적만으로도 원점수 조합에 따라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이 차이가 난다. 지난해 수능 시험을 치른 두 명의 학생들의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원점수를 살펴보면 B수험생이 245점으로 A수험생 240점보다 5점이 더 높았다. 아마도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B수험생은 A수험생보다 대학 지원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 A수험생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 우선 표준점수의 경우에는 언어 영역의 점수가 높은 A수험생이 원점수는 5점이나 낮았지만 표준점수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백분위 점수는 원점수가 낮은 A수험생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점수가 더 높았다. A수험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백분위 합은 243점이었지만 B수험생은 229점에 불과하여 백분위 점수 격차는 14점이나 났다. 원점수가 불리하더라도 수능 점수 반영 방식에 따라 어떤 영역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표준편차가 적은 과목을 잘 본 수험생들이 실제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B수험생의 경우에는 백분위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무조건 지원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성적이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성적 가운데 어떤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표 Ⅲ-3] 2011 정시 모집 수능 성적 활용 지표

(일반 전형 인문계열 기준)

활용지표	대학명
표준점수	가톨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 (58개교)
백분위	공주대, 경기대, 경상대, 강원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한성대, 홍익대 등 (118개교)
백분위/표준점수	건국대(서울), 고려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 등 (22개교)
백분위/표준점수/등급	광주대, 서울기독대, 울산대(의예과)
표준점수/등급	한중대
백분위/등급	호남대
등급	광주대, 광주여대, 김천대, 남부대, 대구외대, 성민대, 신경대, 영동대, 예원예대, 위덕대, 초당대, 칼빈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호남신대, 호원대 등 (25개교)

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요사항 기준임.

사례

점수 산출의 실제-2010 정시 지원 결과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10학번 김○○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총점
표준점수	130	133	132	130.7	525.7
백분위	98	93	94	92.3	377.3
등급	1	2	2	2	



2011 정시 지원 현황		지원 결과
모집군	대학·학과	
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합격
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불합격
다	한동대 전학부	불합격

각 대학들은 표준점수/백분위 성적을 대학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별 합격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백분위 성적을 활용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성적대가 고른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김○○ 학생의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30%로 높은 언어 영역의 백분위 성적이 98로 높은 편이었고 반영 비율이 각각 25%인 수리와 외국어 영역 성적이 고른 편이었기 때문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수리와 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 (3) 탐구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 비해 표준점수/백분위 반영 방법에 따라 유·불리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점수로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탐구 과목은 각 대학들마다 반영 과목 수와 반영 방법은 다르지만 과목별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수험생 대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 학습 시간을 골고루 안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백분위 성적의 상·하 구간별로 환산점수의 차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상위 백분위대에서는 환산점수 차이를 크게, 하위 백분위대는 환산점수 차이를 작게 반영한다.

2010학년도 서울대 사회탐구 영역의 반영 방법을 분석해 보면, 백분위 100점과 99점의 점수 차이는 1.73점이지만, 백분위 96점과 95점 간의 점수 차이는 0.75점에 불과했다. [표 Ⅲ-5]에서 확인해 보면 백분위 100~96점 사이의 최상위권 백분위 점수 간의 환산점수 격차는 크지만 백분위 점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다음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표 Ⅲ-4]와 같이 백분위 합이 1점 차이 나는 두 수험생이 서울대에 지원했을 경우를 살펴보자. A수험생의 탐구 4과목 백분위 합은 387점으로 B수험생의 388점보다 1점이 낮다. 하지만 백분위 100점 만점이 있는 A수험생이 탐구 영역 4과목에서 고른 성적을 받은 B수험생보다 환산점수로는 4.91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서울대의 탐구 영역 환산점수는 높은 백분위 구간에서 구간별 점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고려대, 연세대 등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서울대와 비슷한 방법으로 탐구 영역 환산점수를 반영했다. 따라서 이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고자 할 때는 탐구 영역의 환산점수 유·불리를 확인해야 한다.

[표 Ⅲ-4] 서울대 과학탐구 환산점수를 통한 비교

(백분위 기준)

구분	탐구1	탐구2	탐구3	탐구4	합
A수험생	100	100	94	93	387
서울대 환산 점수	72.62	72.62	66.50	65.89	277.63
B수험생	97	97	97	97	388
서울대 환산 점수	68.18	68.18	68.18	68.18	272.72

[표 Ⅲ-5] 사회탐구 영역-서울대 vs 연세대 vs 고려대 vs 서강대 환산점수 격차

백분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환산점수	차이	누적	환산점수	차이	누적	환산점수	차이	누적	환산점수	차이	누적
100	72.36			72.36			72.36			73.90		
99	70.63	1.73	1.73	70.36	2.00	2.00	70.63	1.73	1.73	71.00	2.90	2.90
98	69.50	1.13	2.86	69.29	1.07	3.07	69.50	1.13	2.86	69.30	1.70	4.60
97	68.40	1.10	3.96	68.41	0.88	3.95	68.40	1.10	3.96	68.20	1.10	5.70
96	67.31	1.09	5.05	67.32	1.09	5.04	67.31	1.09	5.05	67.20	1.00	6.70
95	66.56	0.75	5.80	66.57	0.75	5.79	66.56	0.75	5.80	66.50	0.70	7.40
94	65.90	0.66	6.46	65.91	0.66	6.45	65.90	0.66	6.46	65.90	0.60	8.00
93	65.37	0.53	6.99	65.38	0.53	6.98	65.37	0.53	6.99	65.40	0.50	8.50
92	64.84	0.53	7.52	64.85	0.53	7.51	64.84	0.53	7.52	64.80	0.60	9.10
91	64.34	0.50	8.02	64.34	0.51	8.02	64.34	0.50	8.02	64.40	0.40	9.50
90	63.88	0.46	8.48	63.89	0.45	8.47	63.88	0.46	8.48	63.90	0.50	10.00
89	63.47	0.41	8.89	63.48	0.41	8.88	63.47	0.41	8.89	63.50	0.40	10.40
88	63.04	0.43	9.32	63.05	0.43	9.31	63.04	0.43	9.32	63.10	0.40	10.80
87	62.62	0.42	9.74	62.62	0.43	9.74	62.62	0.42	9.74	62.60	0.50	11.30
86	62.25	0.37	10.11	62.25	0.37	10.11	62.25	0.37	10.11	62.30	0.30	11.60
85	61.82	0.43	10.54	61.83	0.42	10.53	61.82	0.43	10.54	61.80	0.50	12.10

[표 III-6] 과학탐구 영역-서울대 vs 연세대 vs 고려대 vs 서강대 환산점수 격차

백분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환산점수	차이	누적	환산점수	차이	누적	환산점수	차이	누적	환산점수	차이	누적
100	72.62			72.63			72.62			74.60		
99	71.00	1.62	1.62	70.69	1.94	1.94	71.00	1.62	1.62	70.70	3.90	3.90
98	69.18	1.82	3.44	69.19	1.50	3.44	69.18	1.82	3.44	69.10	1.60	5.50
97	68.18	1.00	4.44	68.19	1.00	4.44	68.18	1.00	4.44	68.20	0.90	6.40
96	67.52	0.66	5.10	67.52	0.67	5.11	67.52	0.66	5.10	67.50	0.70	7.10
95	67.04	0.48	5.58	67.04	0.48	5.59	67.04	0.48	5.58	67.00	0.50	7.60
94	66.50	0.54	6.12	66.5	0.54	6.13	66.50	0.54	6.12	66.50	0.50	8.10
93	65.89	0.61	6.73	65.9	0.60	6.73	65.89	0.61	6.73	65.90	0.60	8.70
92	65.29	0.60	7.33	65.29	0.61	7.34	65.29	0.60	7.33	65.30	0.60	9.30
91	64.83	0.46	7.79	64.83	0.46	7.80	64.83	0.46	7.79	64.80	0.50	9.80
90	64.34	0.49	8.28	64.34	0.49	8.29	64.34	0.49	8.28	64.40	0.40	10.20
89	63.85	0.49	8.77	63.85	0.49	8.78	63.85	0.49	8.77	63.90	0.50	10.70
88	63.40	0.45	9.22	63.41	0.44	9.22	63.40	0.45	9.22	63.40	0.50	11.20
87	62.91	0.49	9.71	62.92	0.49	9.71	62.91	0.49	9.71	62.90	0.50	11.70
86	62.51	0.40	10.11	62.52	0.40	10.11	62.51	0.40	10.11	62.50	0.40	12.10
85	62.11	0.40	10.51	62.12	0.40	10.51	62.11	0.40	10.51	62.10	0.40	12.50

(4) 탐구 성적을 백분위로 반영하면 과목별 성적이 비슷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여대와 숭실대, 단국대 등 중위권 대학 상당수가 수능 백분위 성적을 반영한다. 백분위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표준점수 반영 방법보다 과목 선택의 유·불리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만, 중상위권(2등급) 이하 백분위 점수대에서는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 2등급 이하 구간에서는 탐구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1점이 백분위로는 2~4점까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화학 I의 원점수가 40점이면 표준점수 67점, 백분위는 94를 받게 된다. 하지만 원점수 6점이 적은 34점을 받게 되면 표준점수는 61점으로 원점수 차이와 동일하지만 백분위는 82점으로 12점이나 점수 차이가 나게 된다.

생물 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원점수 40점과 37점의 표준점수는 각각 59점과 56점으로 원점수 차이와 동일하지만 백분위는 70점과 60점으로 무려 10점 차이가 난다. 물론 다른 과목 모두 이러한 현상은 공통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백분위 반영 대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표준점수 1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표 III-7] 동일 원점수 대비 탐구 과목별 표준점수/백분위 점수 비교

(2010학년도 수능 기준)

원점수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백분위
50	73	100	76	100	68	99	67	99	77	100	77	100	70	99	73	99
47	70	99	73	99	66	95	64	94	74	99	74	100	67	96	70	97
45	69	98	71	99	64	92	62	87	72	99	72	99	66	94	68	94
42	66	94	68	96	61	84	60	79	69	97	70	97	63	88	66	90
40	64	91	67	94	59	79	58	73	68	95	68	94	62	85	64	87
37	62	85	64	89	56	70	56	64	65	90	65	90	59	77	62	83
34	59	76	61	82	54	60	53	57	62	84	62	84	57	71	59	79
30	56	68	57	73	50	48	50	48	58	76	59	77	53	61	56	73
25	51	56	52	59	45	34	46	37	54	66	54	67	49	49	51	61
20	47	44	47	43	41	21	42	26	49	54	50	58	45	36	47	48

또한 백분위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중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 과목들의 백분위가 고른 학생이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표 III-8]의 탐구 영역 과목들의 성적이 3등급 수준인 C수험생과 D수험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2과목의 표준점수는 D수험생이 C수험생보다 6점이나 높다. 하지만 이들이 백분위를 반영하는 동일 대학에 지원하면 과목별 표준점수가 고른 C수험생의 백분위 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탐구 영역은 2등급 이하의 구간에서는 표준점수의 차이보다 백분위 점수 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탐구 과목별 성적 차이가 큰 수험생들은 표준점수 반영 대학이 유리할 것이다.

[표 III-8] 탐구 영역 과목 조합별 표준점/백분위 차이 비교

구분		화학I	생물I	합계
C수험생	표준점수	61	59	120
	백분위	82	79	161
D수험생	표준점수	76	50	126
	백분위	100	48	148

③ 현행 입시, 심리전도 상당히 중요하다.

(1)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동일 대학 내에서의 학과 간 점수 차이가 달라진다.

지난해 2010학년도 정시 모집의 가장 큰 화두는 큰 폭으로 늘어난 수험생 인원과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은 지원 전략을 수립 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의 합격자 평균 성적을 비교해 보면 동일 학과 간 표준점수가 2010학년도 합격자 성적이 2009학년도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쉽게 출제되었던 수리 영역과 언어 영역의 표준점수가 상당히 낮아졌다. 합격자 성적이 가장 높았던 경영대학을 살펴보면 2개년도 모두 수리 영역의 표준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2009학년도에 153점이었던 수리 영역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2010학년도에는 140점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합격자의 표준점수 성적이 상당히 낮아졌다. 하지만 백분위 성적을 비교해보면 수능 응시자가 늘어난 지난해 합격자 성적이 대부분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과별로 지난해 합격자 성적을 살펴보면 동일 대학 내에서 실제 학과 간 점수 차이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학년도에 경영대학과 국제어문학과 간의 합격자 성적은 각각 562점과 546점으로 16점의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547점과 541점으로 6점 차이에 불과하였다. 특히 반영 비율이 높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성적 차이는 더욱 적었다.

올해는 수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2009~2010학년도 합격자 성적을 종합하여 보다 꼼꼼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과거 합격자 성적, 경쟁률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III-9] 고려대 2009·2010학년도 모집단위별 합격자 평균 성적

모집단위		언어		수리 '나'		외국어		탐구		합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경영대학	2010학년도	130	97	140	99	137	98	139	97	547	390
	2009학년도	136	98	153	99	134	98	140	98	562	393
교육학과	2010학년도	129	97	137	97	137	98	137	96	540	387
	2009학년도	133	97	146	98	132	96	136	96	546	387
국어교육과	2010학년도	130	98	138	98	136	98	136	95	540	388
	2009학년도	136	99	149	99	132	96	138	97	554	391
국제어문학부	2010학년도	129	96	139	98	137	98	136	95	541	387
	2009학년도	133	96	146	98	132	97	135	95	546	386

모집단위		언어		수리 '나'		외국어		탐구		합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국제학부	2010학년도	129	96	138	97	137	98	137	96	541	387
	2009학년도	130	94	148	98	134	98	136	96	548	386
미디어학부	2010학년도	129	96	139	98	137	98	138	97	542	389
	2009학년도	134	98	149	99	133	98	137	96	553	390
보건행정학과	2010학년도	130	97	138	97	136	97	135	95	538	386
	2009학년도	131	95	145	98	132	96	133	93	540	382
식품자원 경제학과	2010학년도	130	97	139	98	136	97	137	96	542	389
	2009학년도	134	98	147	98	131	95	139	96	551	388
역사교육과	2010학년도	128	95	138	97	134	95	136	94	534	378
	2009학년도	132	95	146	98	129	93	136	96	543	381
영어교육과	2010학년도	129	96	140	99	137	98	136	96	541	389
	2009학년도	133	97	148	99	133	98	136	96	550	389
인문학부	2010학년도	129	97	139	98	137	98	137	96	542	389
	2009학년도	133	97	148	99	132	97	136	96	550	388
자유전공학부	2010학년도	129	96	140	98	137	98	137	96	543	389
	2009학년도	131	94	144	96	131	95	135	94	541	380
정경대학	2010학년도	131	98	140	99	138	99	139	97	547	392
	2009학년도	135	98	151	99	134	98	138	97	557	392
지리교육과	2010학년도	129	97	139	98	135	97	136	95	539	386
	2009학년도	132	96	148	98	131	95	137	96	547	386

주) 탐구 영역은 상위 3과목 성적 기준.

모집단위		언어		수리 '가'		외국어		탐구		합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간호학과	2010학년도	126	93	126	89	133	95	129	90	517	368
	2009학년도	130	95	126	89	130	94	128	89	517	368
건축사회환경 공학부	2010학년도	127	95	130	94	134	96	130	91	522	376
	2009학년도	130	95	132	94	132	97	131	93	525	378
건축학과	2010학년도	127	95	132	95	134	96	132	92	525	378
	2009학년도	130	95	134	95	132	97	131	93	527	379
기계공학부	2010학년도	128	95	132	95	134	96	131	92	526	378
	2009학년도	132	96	135	95	131	96	131	93	529	380
물리치료학과	2010학년도	126	92	127	90	128	91	130	90	511	363
	2009학년도	127	91	125	87	129	93	124	85	504	356
방사선학과	2010학년도	125	92	126	90	132	94	131	91	514	367
	2009학년도	130	94	126	88	129	93	123	83	509	359
보건과학부	2010학년도	127	93	126	89	135	96	129	90	516	369
	2009학년도	129	94	124	87	129	94	129	90	512	365

모집단위		언어		수리 '가'		외국어		탐구		합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표준	백분위
생명과학 계열학부	2010학년도	129	96	131	95	136	97	132	93	528	381
	2009학년도	133	97	132	93	132	97	131	93	528	379
생체의공학과	2010학년도	128	96	130	93	135	97	131	92	524	377
	2009학년도	132	96	130	92	130	94	130	91	521	374
수학교육과	2010학년도	128	96	131	94	134	96	134	94	527	379
	2009학년도	132	96	140	97	131	95	133	95	536	384
신소재공학부	2010학년도	129	97	131	95	135	97	132	93	528	382
	2009학년도	131	95	134	95	131	96	132	94	529	380
의예학과	2010학년도	132	99	139	99	139	100	137	97	547	394
	2009학년도	137	100	149	100	135	99	134	96	555	395
이과대학	2010학년도	128	95	131	95	135	97	133	93	526	379
	2009학년도	132	96	133	94	131	96	131	93	527	378
임상병리학과	2010학년도	127	94	128	92	133	95	130	92	518	373
	2009학년도	132	95	122	83	131	96	128	90	513	364
전기전자전파 공학부	2010학년도	128	95	131	94	134	96	131	92	524	376
	2009학년도	132	96	134	95	132	96	131	93	529	380
정보경영공학부	2010학년도	129	96	130	94	135	97	131	92	526	379
	2009학년도	131	93	133	94	129	93	130	91	520	368
컴퓨터통신 공학부	2010학년도	129	97	130	93	135	97	131	92	527	380
	2009학년도	132	96	132	94	130	94	131	92	529	377
치기공학과	2010학년도	126	93	126	88	131	93	128	89	511	363
	2009학년도	127	91	127	89	129	94	128	90	510	363
컴퓨터교육과	2010학년도	128	95	127	91	135	96	131	92	520	374
	2009학년도	128	91	132	93	130	95	128	90	518	370
화공생명공학과	2010학년도	129	96	134	97	136	97	131	92	530	382
	2009학년도	133	97	137	96	133	97	132	94	534	384
환경생태공학부	2010학년도	127	94	130	94	135	97	132	93	524	377
	2009학년도	132	96	130	92	131	95	130	93	523	377

주) 모집단위는 2010학년도 정시 모집 기준임.

(2) 2010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도 이변은 속출하였다.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도 정시모집에서 해마다 크고 작은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2010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처음으로 2단계에서 20%를 반영하였던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수능 성적을 반영하였다. 또한 쉬운 수능으로 인해 서울대 지원자들이 대거 하향안전지원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실제 지원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학과 간 합격선이 크게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인문계열의 경우 합격선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소비자동학부가 1단계 최저점이 613.4점(서울대 환산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인류지리 612.5점, 농경제사회학부 612.1점 순이었다. 반면 최고 인기 학과인 경영대학은 609.4점, 사회과학계열은 603.4점으로 상당히 낮았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의 점수가 혼선을 가져와 물리천문학부 567점, 간호대학은 555.7점이었지만 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과학부는 553점에 불과하였다.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대 자유전공의 합격선이 기대보다 낮았으며 등급제로 시행되었던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인기 학과로 분류되었던 법과대학과 생명과학부, 수의예과의 합격자 성적은 기대 이하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었다.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는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였지만 2단계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전 영역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289명을 비롯한 수능 성적 상위자들이 지원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2008 서울대 정시 1단계 합격자 점수 분석(추정 자료)

인문계(2배수)				자연계(3배수)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1단계 컷 점수[162점 만점]	경쟁률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1단계 컷 점수[153점 만점]	경쟁률
인문계열1	80	157점	4.01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23	140점	4.74
인문계열2	60	157점	4.92	물리·천문학부	17	141점	4.59
사회과학계열	160	159점	3.28	화학부	14	143점	4
인류·지리학과군	24	157점	6.63	생명과학부	22	138점	5.77
경영대학	71	160점	3.86	의예과	27	152점	5.07
농경제사회학부	29	156점	6.79	수의예과	19	137점	4.32
법과대학	105	155점	3.93	기계항공공학부	48	144점	4.5
교육학·국민윤리교육	15	155점	6.07	재료공학부	24	145점	4.83
국어교육	20	154점	4.6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	73	141점	5.68
외국어교육계열	34	154점	5.26	화학생물공학부	31	145점	4.9
사회교육계열	35	154점	6.23	공학계열	50	144점	5.24
소비자동학부	24	157점	4.92	농생명공학계열	53	140점	4.75

(3) 추가 합격자 비율에 따라 최종 합격선은 바뀐다.

각 대학들은 모집 군의 변경, 선발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가·나·다’ 군의 지원 전략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에서는 복수 합격으로 인한 추

가 합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군에서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는 등 실제 입시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세대 생화학과의 경우 최초 합격자의 성적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표 Ⅲ-12]에서 보듯 23명 모집에 29명이 추가 합격하여 실제 최종 컷은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표 Ⅲ-13]에서 보듯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의 합격자 중 서울대 합격자의 72.8%가 중복 합격하였으며 원광대 의·치대 33.3% 등 많은 인원이 의학계열에 중복 합격하여 연세대 등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반면, 연세대 노어노문학과와 의 경우 16명 모집에 추가 합격자는 단 1명도 없었다. [표 Ⅲ-13]의 타군 중복 합격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 서울대 합격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Ⅲ-12] 2010학년도 정시 모집 주요 대학 모집단위별 추가 합격자 현황

대학명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모집 인원	추가합격인원	추가합격비율(%)	모집단위		모집 인원	추가합격인원	추가합격비율(%)	
고려대	경영		179	115	64.2%	의예학과		25	5	20.0%	
	정경		204	81	39.7%	수학교육		21	7	33.3%	
	국어교육		21	6	28.6%	화공생명공학과		36	15	41.7%	
	국제어문		199	21	10.6%	전기전자전파공		86	10	11.6%	
	인문학부		165	17	10.3%	이과대학		90	48	53.3%	
동국대	경영학부	가군	80	45	56.3%	전자전기공학부		68	65	95.6%	
		나군	80	26	32.5%			69	52	75.4%	
	국어교육	가군	11	4	36.4%	수학교육		11	3	27.3%	
		나군	11	10	90.9%			10	7	70.0%	
	영어영문	가군	28	17	60.7%	건축공학		22	16	72.7%	
		나군	27	7	25.9%			22	20	90.9%	
성균관대	사회과학	가군	121	23	19.0%	의예		19	1	5.3%	
		나군	80	56	70.0%	반도체시스템		15	5	33.3%	
	인문과학	가군	142	16	11.3%	공학계열		가군	246	44	17.9%
		나군	110	58	52.7%			나군	180	72	40.0%
	글로벌경영	가군	36	0	0.0%	자연과학계열		가군	121	40	33.1%
		나군	20	13	65.0%			나군	105	45	42.9%
성신여대	국어국문	가군	22	11	50.0%	통계학		가군	19	10	52.6%
		나군	14	24	171.4%			나군	15	5	33.3%
	경영	가군	38	16	42.1%	IT학과		가군	36	26	72.2%
		나군	29	42	144.8%			나군	28	34	121.4%
	심리	가군	24	7	29.2%	의류학과		가군	26	7	26.9%
		나군	19	35	184.2%			나군	20	2	10.0%

대학명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단위	모집 인원	추가합격인원	추가합격비율(%)	모집단위	모집 인원	추가합격인원	추가합격비율(%)		
연세대	경영	188	171	91.0%	의예	32	26	81.3%		
	경제	110	51	46.4%	치의예	13	0	0.0%		
	정치외교	55	26	47.3%	생화학파	23	29	126.1%		
	심리학과	21	3	14.3%	화공생명	61	77	126.2%		
	노어노문	16	0	0.0%	대기과학	21	3	14.3%		
이화여대	경영학부	69	9	13.0%	분자생명과학부	119	23	19.3%		
	교육공학과	20	1	5.0%	과학교육과	58	20	34.5%		
	사회과학부	178	34	19.1%	수리물리과학부	68	13	19.1%		
	영어교육과	28	4	14.3%	식품영양학과	24	2	8.3%		
한양대	경영학과	가군	85	8	9.4%	의예과	가군	38	4	10.5%
		나군	43	37	86.0%					
	파이낸스 경영	가군	14	1	7.1%	응용화공	가군	24	7	29.2%
		나군	20	18	90.0%					
	국어교육	가군	15	2	13.3%	신소재공학부	가군	23	3	13.0%
	영어교육	나군	15	11	73.3%					

[표 III-13] 중복 합격자의 타군 복수 합격 현황

(2010학년도 메가스터디 회원 대상)

군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	나군 합격 대학 및 비율	다군 합격 대학 및 비율
가 군	고려대	인문	경영대학	서울대 78.9%, 성균관대 11.0%, 서강대 7.3%	원광대 90.2%, 건국대 4.92%, 한동대 3.28%
			식품자원경제학과	성균관대 50%, 서울대 25%, 서울시립대 25%	건국대 100%
		자연	전기전파공학부	한양대 60.0%, 서울대 16.7%, 서강대 6.7%	건국대 52%, 항공대 20.0%, 동국대 16%
			이과대학	서울대 39.1%, 한양대 39.1%, 성균관대 10.9%	건국대 40.6%, 동국대(경) 21.8%, 홍익대 18.8%
	연세대	인문	경제학과	서울대 72.7%, 성균관대 16.4%, 서강대 5.5%	원광대 90%, 홍익대 5%
			사학과	한양대 42.9%, 서강대 28.6%, 서울교대 14.3%	한국항공대 30%, 홍익대 16.4%
		자연	사회환경시스템	한양대 73.1%, 성균관대 11.5%, 서강대 7.7%	홍익대 45.5%, 건국대 36.4%, 관동대 9.1%
			생화학파	서울대 72.8%, 단국대(천) 6.9%, 한양대 3.5%	원광대 33.3%, 단국대(천) 25%, 건국대 16.7%
	한양대	인문	사회과학부	한국외대 30%, 중앙대 22.2%, 한양대 10.3%	건국대 68.4%, 홍익대 21.1%, 인천대 10.1%
			독문과	경희대 33.3%, 한국외대 33.3%, 경인교대 11.1%	건국대 80.0%, 홍익대 20.0%
		자연	수학교육과	한양대 35.3%, 인하대 30.9%, 건국대 29.4%	홍익대 62.5%, 건국대 25.0%, 동국대(경) 12.5%
			건축학과	한양대 42.9%, 성균관대 28.6%, 경희대 14.3%	홍익대 66.7%, 건국대 22.2%, 한국항공대 11.1%
	인하대	인문	국제통상	인하대 50.0%, 한국항공대 17.3%, 부산대 12.7%	경희대(국제) 60.0%, 건국대 20.0%, 명지대(서울) 20.0%
			인문학부	인하대 23.5%, 한양대(예) 17.7%, 상명대 11.8%	명지대(서울) 33.3%, 서울여대 16.7%, 경희대(국제) 8.3%
		자연	생명화학공	건국대 50.0%, 인하대 25.0%, 경희대(국) 16.7%	경희대(국제) 31.3%, 홍익대 25.0%, 한국항공대 18.8%
			신소재	인하대 31%, 건국대 20.7%, 경희대(국) 17.2%	홍익대 50.0%, 경희대(국제) 25.0%, 한양대(인산) 12.5%
나 군	동국대	인문	경찰행정학부	경희대 25.0%, 동국대 25.0%, 고려대 18.8%	홍익대 45.5%, 건국대 36.4%, 한국항공대 9.1%
			중어중문	숙명여대 57.14%, 경희대 14.3%, 홍익대 14.3%	경희대(국제) 33.3%, 단국대 33.3%, 명지대(서울) 33.3%
		자연	전자전기공학부	동국대 24.3%, 홍익대 21.6%, 국민대 18.9%	경희대(국제) 28.1%, 건국대 25.0%, 한국항공대 9.4%
			식품생명공학과	국민대 25.0%, 숙명여대 25.0%, 홍익대 12.5%	건국대 20.0%, 가톨릭대 20.0%, 단국대 20.0%

군	대학명	계열	모집단위	가군 합격 대학 및 비율	다군 합격 대학 및 비율
나 군	서강대	인문	경영학부	고려대 47.4%, 연세대 28.1%, 성균관대 22.8%	원광대 37.5%, 중앙대 18.8%, 건국대 18.8%
			국제문화계 I	고려대 47.1%, 성균관대 23.5%, 연세대 17.7%	건국대 60.0%, 한국항공대 20.0%, 홍익대 20.0%
		자연	전자공학계	고려대 37.5%, 성균관대 37.5%, 이화여대 12.5%	건국대 50%, 경희대(국제) 25.0%, 홍익대 12.5%
			화공생명공학	고려대 53.3%, 연세대 20.0%, 성균관대 13.3%	건국대 37.5%, 한국항공대 25.0%, 한동대 25.0%
	한국외대	인문	경영학부	경희대 58.3%, 한양대 16.7%, 홍익대 8.3%	홍익대 47.4%, 건국대 31.6%, 한동대 15.8%
			베트남어	경희대 33.3%, 성균관대 16.7%, 한양대 16.7%	건국대 37.5%, 홍익대 25.0%, 경희대(국제) 12.5%
			영문학과	한양대 37.5%, 이화여대 37.5%, 경희대 25.0%	건국대 42.9%, 홍익대 35.7%, 한국외대(웅진) 14.3%
	중앙대	인문	신문방송	성균관대 33.3%, 한양대 33.3%, 한국외대 33.3%	건국대 50.0%, 홍익대 16.7%, 한국항공대 16.7%
			경영학부	한양대 50.0%, 성균관대 33.3%, 부산대 16.7%	홍익대 36.7%, 건국대 31.8%, 한동대 18.2%
		자연	생명과학과	경희대 25.0%, 숙명여대 25.0%, 한양대 25.0%	건국대 90.0%, 경희대 10.0%
			화학과	성균관대 50.0%, 고려대 25.0%, 한양대 25.0%	건국대 62.5%, 홍익대 37.5%

또한 입시요강의 미묘한 차이가 전혀 다른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문계 수험생들 중 서울대를 목표로 준비하는 대다수는 ‘가’ 군의 연세대, 고려대를 놓고 어느 대학에 지원하지에 대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된다.

2010학년도에는 실제 선발하는 전형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연세대는 계열별 선발 방식에서 학과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고려대의 경우에는 계열별 선발 방식을 고수하였다. 수능 반영 방식에서의 차이점은 연세대의 경우 사회탐구와 제2외국어의 동일 백분위간의 환산점수가 동일하였지만 고려대의 경우 제2외국어의 최상위권 백분위에 대한 환산점수를 높게 주었다. 다시 말해 외고 등 제 2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지난해 변화들은 실제 합격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에 합격선이 낮았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등은 실제 컷이 상당히 올라가고 과거에 합격선이 높았던 연세대 기계공학 등의 학과들은 컷이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쟁 대학들의 선발 방식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이들 경쟁 대학 입시 요강의 조그마한 차이가 상위권 수험생들이 연세대로 몰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이들 대학 모두 수능 우선선발제도를 실시했는데 연세대는 수능 우선선발 합격자들에게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합격자 통지를 하여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지만 고려대는 이 자격에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원자 전원이 모두 논술에 응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수능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서울대 대학별고사에 집중하기 위해 연세대로 몰려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우선선발로 정원 161명의 50%인 81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능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121명의 수험생들이 몰리게 되었다.

2009학년도에는 고려대가 경영학과의 최초 합격생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광고를 먼저 내고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세웠지만 오히려 소신 지원하고자 한 수험생들로 하여금 우수한 학생이 몰릴 것을 우려하게 만들어 지원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지원 경쟁률은 2.53 : 1에 불과하였으며 여기에 서울대 등과 중복 합격한 119명(모집 인원 172명 중 69%)이 빠져나가 실질 경쟁률은 1.83 : 1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높았지만 최종 합격선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수험생들은 다음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Ⅲ-14]는 지난해 메가스터디 모의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합격자 분석 결과이다. 모의지원을 통한 최종 배치진단 결과, 인문, 자연계열 모두 연세대에 안정 지원한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려대 인문계열의 경우 불안(소신) 지원으로 판정 받은 학생의 합격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합격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메가스터디 합격전략 플서비스의 지원 경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Ⅲ-14] 2010학년도 메가스터디 정시 서비스 이용자 대상 분석 자료 [고려대 vs 연세대]

대학명	합격 여부	모집 군	계열	사례수 (인원)	배치 진단 결과 실제 합격자 비율					
					안정권		불안권		최종	
					매우 안정	안정	불안(소신)	매우 불안	안정권	불안권
고려대	합격	가	인문	704	1.4%	31.8%	50.1%	16.6%	33.2%	66.8%
	합격	가	자연	550	3.6%	32.7%	53.3%	10.4%	36.4%	63.6%
	불합격	가	인문	606	0.2%	0.7%	29.9%	69.3%	0.8%	99.2%
	불합격	가	자연	502	0.4%	1.4%	18.9%	79.3%	1.8%	98.2%
연세대	합격	가	인문	667	6.7%	37.5%	36.9%	18.9%	44.2%	55.8%
	합격	가	자연	679	18.1%	44.6%	27.1%	10.2%	62.7%	37.3%
	불합격	가	인문	601	0.5%	9.2%	30.8%	59.6%	9.7%	90.3%
	불합격	가	자연	301	0.0%	6.0%	21.6%	72.4%	6.0%	94.0%

특정 대학의 최종 커트라인이 하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매년 수험생들은 각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배치표 등을 참고하여 지원 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배치표는 참고용일 뿐! 실제 지원 결과를 보면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① 시험의 난이도, 대학입시의 변화에 따른 지원 패턴의 변화
- ② 추가 합격으로 인한 각 군별 지원자들의 이동
- ③ 대학 선발 방식의 변경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탐구 과목 수, 내신의 비중 등
- ⑤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 ⑥ 기타

※ 수능 성적 발표 후 최종 지원 전략 설명회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실전 지원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4) 정시 모집의 각 군별 특징을 잘 살펴 지원해야 한다.

매년 가장 두드러진 정시 모집의 변화는 각 대학들의 분할 모집 등 군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가 새롭게 '다' 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다' 군의 선택 대학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가' 군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수리 '가' 형을 고집하였던 국민대가 올해부터는 수리 '가·나' 형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 군에서 전통적으로 수리 '가' 형을 지정하고 있는 동국대, 인하대, 한양대(에리카) 등의 경쟁 대학은 합격선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광운대, 숭실대, 가톨릭대와 같이 수리 '가·나' 형 모두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대학들은 다소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능 '2+1' 유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의 합격선이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까지 수능 '2+1' 유형으로 선발하였던 이화여대(자연), 명지대 등의 대학들이 수능 '3+1' 유형으로 바꿈에 따라 홍익대(자연), 경기대, 한국항공대, 성신여대 등의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Ⅲ-15】 모집 군별 수능 유형 분류

구분	계열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3+1 유형	인문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 세종-인문대학 제외),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서울),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서울),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서울),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외대(서울),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등	건국대(서울),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서울), 명지대,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서울),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서울), 한양대(서울) 등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세종-인문대학 제외),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명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천대, 중앙대(서울-경영), 한국외대(용인), 홍익대(서울) 등
	자연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희대(국제), 고려대(세종-인문대학 제외), 광운대, 이화여대(간호 등 제외), 중앙대(서울-경영), 한국외대(용인), 홍익대(서울) 등	건국대(서울),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서울),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서울) 등	건국대(서울), 경희대, 국민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2+1 유형	인문	경기대, 고려대(세종-인문대학), 덕성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한국항공대 등	경기대, 고려대(세종-인문대학), 동덕여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등
	자연	경기대, 성신여대(간호), 숙명여대, 한성대, 홍익대(서울) 등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간호), 숙명여대, 한국항공대, 홍익대(서울) 등	경기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용인), 한국항공대, 한성대, 홍익대(서울) 등

- ①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작년에 비해 수능 '3+1' 유형 반영 대학이 증가하여 '2+1' 유형 반영 대학 중 인기 대학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 ② '다' 군의 경우 전체 모집단위를 모두 선발하는 주요 대학은 건국대와 아주대, 홍익대 정도뿐이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들이 '다' 군에 새롭게 진입하였지만 선발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상위권 수험생은 '다' 군 지원시 지난해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③ '가' 군의 경우 상위권 대학들은 집중되어 있지만 중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소재 대학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률을 나타낼 것이다.
- ④ 올해 새롭게 분할 모집을 변경한 대학들은 각 군별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 ex)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나' 군 분할 모집에서 '가·나·다' 군 분할 모집으로 변경, 국민대 '가' 군 모집에서 '가·다' 군 분할 모집으로 변경 등

[표 III-16] 2011학년도 정시 모집 군 변동 현황

구분	대학	계열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모집 군 축소	강남대	인문·자연	가·나·다	가·나
	경기대	자연	가·다	가
	금오공대	자연	가·나·다	가·다
	울산파기대	인문·자연	가·나	나
모집 군 확대	가톨릭대	인문	가	가·다
	강릉원주대	인문	다	나·다
	경희대	인문·자연	가·나	가·나·다
	국민대	인문·자연	가	가·다
	상명대	인문(경영학부)	나	나·다
	서울시립대	인문·자연	가·나	가·나·다

④ 수능 '2+1' 반영 대학 감소로 중위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2010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수능 '3+1' 반영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응시하였지만 인문계는 수리 영역, 자연계는 언어 영역의 성적이 상당히 낮아 실제로 정시 지원시에는 '2+1' 반영 대학에 관심을 가지는 수험생들이 상당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8학년도 숭실대, 아주대, 한양대, 광운대 등에 이어 2009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국민대, 세종대 등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3+1' 반영 유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성신여대, 한국항공대 등 주요 '2+1' 반영 대학의 문은 더욱 좁아져 이들 대학은 상당히 높은 합격선과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7] 2011·2010학년도 수능 반영 형태별 대학 비교

(일반 전형 인문·자연계 기준)

구분	탐구 과목수	2011학년도	2010학년도
3 + 1 유 형	4과목	7개교—강릉원주대(치의예과),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수원가톨릭대, 울산대(의예), 청주교대	8개교—강릉원주대(치의예과),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수원가톨릭대, 울산대(의예), 청주교대
	3과목	30개교—경북대, 경희대 한의예, 부산대, 성균관대 의예, 전남대	32개교—건국대(서울),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세종—인문대학 제외), 단국대(천안—의예, 치의예), 대구가톨릭대(의예), 동국대(서울, 경주—의학계열), 동아대(의예), 서강대, 서남대(의예),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원주—인문 제외), 영남대, 울산과학기술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서울—인문) 등
	2과목	63개교—가톨릭대, 강원대(춘천—‘다’ 군), 건국대(서울), 강원대(바이오톨리노, 한의예),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대구대, 명지대, 상명대(서울), 상지대(간호, 한의예), 서경대, 서울여대(‘나’ 군 인문 및 의류),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인문 및 생활과학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원주—인문 제외),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동대 등	54개교—가톨릭대, 강원대(춘천—다군), 경인교대, 국민대, 광운대, 대구가톨릭대(의예 제외), 대구대, 상명대(서울), 상지대(간호, 한의예), 서경대, 서울여대(나군 인문), 성공회대(자연),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동대 등
	1과목	6개교—감리교신대, 건동대, 경운대, 예수대(간호), 탐라대, 한중대	5개교—감리교신대, 건동대, 경운대, 탐라대, 한중대
2 + 1 유 형	4과목	1개교—인천가톨릭대	1개교—인천가톨릭대
	3과목	4개교—고려대(세종—인문대학), 대전가톨릭대 등	8개교—고려대(세종—인문대학), 대전가톨릭대, 연세대(원주—인문), 이화여대(수학교육, 과학교육 제외한 자연계), 중앙대(안성—‘나’ 군 우선선발 제외), 홍익대(서울—자연) 등
	2과목	68개교—강남대, 건국대(충주), 건양대(의학파), 공주대(사범계 제외), 대전대, 동덕여대, 상명대(천안), 서울산업대(문예창작, 영어), 서원대, 선문대, 성공회대, 성신여대(간호), 안양대, 연세대(원주—인문), 용인대, 이화여대(간호, 식품영양, 보건관리), 전주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자연), 한남대, 호서대 등	68개교—건국대(충주), 건양대(의학파), 경기대, 공주대, 대전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천안), 서울산업대(인문), 서원대, 선문대, 성공회대(인문), 성신여대(간호), 안양대, 전주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자연), 한남대, 호서대 등
	1과목	26개교—경기대, 강원대(바이오톨리노, 한의예 제외), 나사렛대, 목원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수원대, 한라대 등	25개교—경원대(바이오톨리노, 한의예), 나사렛대, 목원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수원대, 한라대, 한성대 등
특 이 유 형	3과목	1개교—루터대	2개교—루터대, 홍익대(나군 자연계 및 자율전공)
	2과목	31개교—가천의과학대, 금오공대, 덕성여대, 동명대, 성균관대(자연계 우선선발), 성신여대(간호·글로벌의과학 제외), 장로회신대, 청주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해양대(인문), 한림대(간호), 홍익대(‘나’ 군 자연계 및 자율전공) 등	25개교—가천의과학대, 금오공대, 덕성여대, 동명대, 성신여대(간호 제외), 숙명여대(‘나’ 군), 용인대, 장로회신대, 청주대, 한국기술교대 한림대(간호) 등
	1과목	8개교—그리스도대, 김천대, 영동대(사범계열, 보건계열 제외), 예원여대, 청운대, 한림대(의예, 간호 제외) 등	9개교—강남대, 그리스도대, 영동대(사범계열, 보건계열 제외), 우송대, 청운대, 한림대(의예, 간호 제외) 등
	탐구 미반영	11개교—광신대, 목포해양대, 삼육대(일본어, 중국어, 영어미문), 조선대(군사학부), 추계예대, 칼빈대 등	11개교—광신대, 목포해양대, 삼육대(일본어, 중국어, 영어미문), 조선대(군사학부), 추계예대, 칼빈대 등

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주요사항 기준임.

⑤ 자연계 수험생은 교차 지원 시 수리 '가' 형의 가산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2010학년도 수리 영역 표준점수 적용 시 수리 '가' 형의 2등급 컷(백분위 89 기준)의 표준점수는 125점이다. 여기에 동국대 수리 '가' 형 가산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8] 수리 '가' 형 가산점 부여 시 유불리 사례 <동국대 기준>

모집단위 (가산점)	수리 '가' 형	수리 '나' 형	
	2010학년도 2등급 컷(125점 (백분위 89 기준) 적용 시	수리 '가' 형 가중치 적용 시 상위 표준점수	해당 백분위
가정교육과(3%)	$125점 + (125 \times 0.03) = 128.75점$	129	88
컴퓨터공학전공(10%)	$125점 + (125 \times 0.1) = 137.5점$	138	97
바이오환경과학과(15%)	$125점 + (125 \times 0.15) = 143.75점$	144	×

2010학년도 수리 '나' 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수리 '가' 형과 동일한 142점이었다. 가산점 3% 적용 시에는 수리 '나' 형을 4점만 더 받아도 수리 '나' 형이 유리하지만 가산점 10% 적용 시에는 수리 '나' 형을 138점(해당 백분위 97) 받아야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만약 바이오환경과학과와 같이 15%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수리 '나' 형 만점(142점)보다 2점이 높은 144점 이상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듯 가산점 여부에 따라 실제 점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리 '가' 형 가산점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표 III-19] 수리 영역 '가'형 가산점 부여 대학

가산점	대학명
35%	서울과학기술대 (1개교)
25%	안동대(사범계열), 제주대(수학교육과·수의예과·간호학과·식품영양학과·의류학과·생활환경복지학부·교육대학 제외) (2개교)
20%	경북대(생활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가정교육과·간호학과·생태환경과학대학·이공대학), 대구가톨릭대(CU인재학부), 서원대(수학교육과), 전남대(광주-자율전공학부·생명과학기술학부·간호학과·바이오에너지공학과·통계학과·지구환경과학부·생물학과·화학과 / 여수), 조선대(수학교육과), 창원대(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 한경대(토목공학과·안전공학과·환경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생물공학과·컴퓨터공학과·웹정보공학과·전자정보공학과·정보제어공학과·전기공학과·기계공학과) (7개교)
15%	강원대(춘천), 경기대, 경상대, 고신대(의예과), 동국대(서울-바이오시스템대학), 부경대, 안동대(공과대학·식품영양학과), 조선대(수학교육과 제외) (8개교)
11.5%	경성대 (1개교)
10%	가천의과학대(생명과학과), 건국대(충주), 경남대, 경일대, 계명대(의예과 제외), 광운대(건축학과·건축공학과 제외),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대, 남부대(간호학과), 단국대(죽전-자연과학대학·건축공학과·건축학과·파이버시스템공학과·화학공학과), 대구가톨릭대(의예과·CU인재학부·수학교육과 제외), 대구한의대(간호학과·한의예과 제외- '나'축학은 4%, 간호학과), 대불대(수학교육과), 덕성여대(의약생명과학과 제외), 동국대(서울-정보통신공학·멀티미디어공학·컴퓨터공학), 동서대, 명지대, 목원대(수학교육과), 목포대(수학교육과 제외), 부산대(생명자원과학대학·생활환경대학), 삼육대, 상명대(서울-의류학과·외식영양학과·소비자주거학과), 선문대, 성공회대(디지털컨텐츠학과 제외), 세명대, 세종대(자연과학대학 제외), 안양대, 영남대(수학과·의예과·수학교육과·가족주거학과·의류학과·심리지원학과 제외), 예수대, 울산대(의예과·생활과학부·기계자동차공학부(우선선발) 제외), 위덕대(간호학과), 인천대, 인하대(건축학부·간호학과·생활과학부), 전북대(과학학과·식품공학과·의류학과·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간호학과·한약지원학과·환경조경디자인학과·고분자나노공학과·동물생명공학과·동물소재공학과·신림지원학과·IT정보공학부(소프트웨어공·반도체과학기술학과·바이오식품공학과·생물환경화학학과·원예학과·조경학과·주거환경학과), 전주대, 창원대(자연과학대학(의류학과·아동가족학과·식품영양학과 제외)), 한경대(건축학부·조경학과·의류산업학과·영양조리학과·아동가족복지학과·응용수학과·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외대(용인-수학과 제외), 한국교원대(가정교육과·기술교육과·컴퓨터교육과·초등교육과), 한국항공대(공학과·이동한국해양대(해사수송과학부 제외), 한려대(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방사선학과·임상병리학과·작업치료학과), 한밭대 (44개교)
8%	숭실대(수학과 제외), 충주대 (2개교)
7%	이주대('가' 군 산업정보시스템학부·건축학부·정보및컴퓨터학부·미디어학부·간호학부), 한림대(의예과 제외) (2개교)
5%	가톨릭대, 강원대(한의예과 제외), 공주교대, 공주대(사범계열 제외), 관동대(의학과 제외), 극동대, 남서울대, 대구대, 동국대(경주-수학교육과), 동신대(한의예과·의료보건계열), 동의대(한의예과 제외), 목포해양대, 상명대(천안), 서경대, 성결대, 성신여대(생명과학학부 제외), 수원대(생활과학대학 제외), 순천대, 신라대, 을지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북대 (23개교)
4%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나' 형은 2%), 한신대 (2개교)
3%	강남대, 강릉원주대(치의예과 제외), 대진대, 동국대(서울-가정교육과), 서원대(수학교육과 제외), 진주산업대, 한서대 (7개교)
2%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중원대, 한국산업기술대 (4개교)
기타	건동대(3점), 대전대(간호학과 20점, 간호학과·한의예과 제외 30점), 동명대(10점), 동아대(의예과 제외 10점, 의예과 12점), 동양대(10점), 상지대(이공과대학 3점, 한의예과 5점), 순천향대(10점), 영동대(10점), 중부대(15점), 차의과학대(간호학과 5점), 청주대(30점), 충북대(수학과·정보통계학과·수학교육과·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20점), 팽택대(10점), 한국국제대(물리치료학과·방사선학과·간호학과 5점), 한국기술교대(15점), 한성대(15점) (16개교)
미정	건양대(의학과), 단국대(천안-의학계열 제외), 우석대(수학교육과), 우송대(간호학과), 원광대(수학교육과), 한국성서대 (6개교)

주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 주요사항 기준이므로 반드시 최종 정시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람.

주2) 경북대(생활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가정교육과·간호학과·생태환경과학대학·이공대학)와 경성대, 순천향대는 수리 '나'형 선택 시 감산함.

IV. 최종 합격까지 필승전략이 필요하다!

① 지원의 원칙을 정하자.

정시 모집은 '가', '나', '다' 군별로 모두 3번의 지원 기회(군별로 산업대학 추가 지원 가능)가 있는 만큼 적정 안정 지원과 소신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리한 상향 지원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지나친 안전 하향 지원은 성취감이 저하되어 성실한 대학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신 지원 요령

- 본인의 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종합하여 나만의 소신 지원 공식을 만들어라.

ex) 다양한 변수

- 본인의 점수와 지원 희망 대학/학과 간의 점수 차이
- 추가 합격 가능성
- 경쟁률 정보
- 기타 고려 사항

- (1) 자신에게 유리한 수능 반영 영역에 따라 모집 군별로 3~5개 대학을 선정하여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지난해 경쟁률 및 합격선 등을 리스트로 정리한다.

■ 과거 정시 모집의 교훈

- ① 성적(수능시험 및 학생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학별 입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② 일반적으로 전형 방식에 따라 지원 경쟁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① 수능 반영 영역이 적으면 경쟁률 상승

ex)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가' 군(언어 또는 외국어 중 선택1 + 수리 + 탐구)

→ 2010 정시 경쟁률 7.18 : 1 (21명 모집에 151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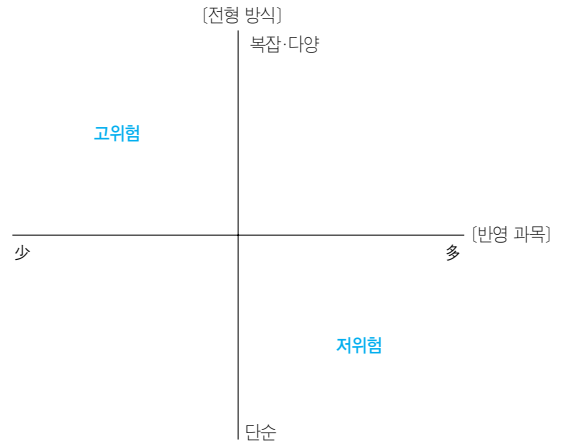
홍익대 자율전공 '가·다' 군(언수외 중 택2)

→ 2010 정시 경쟁률 '가' 군 11.5:1, '다' 군 47.2:1

② 전형 요소가 적으면 경쟁률 상승

ex) 경희대 경영 '가' 군 수능 60% + 학생부 40%, '나' 군 수능 100%

→ 2010 정시 경쟁률 '가' 군 4.68 : 1, '나' 군 6.48 : 1



③ 대학별 입시정보에 따른 개인별 유·불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형 방식과 반영 과목에 의한 경쟁률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별 입시정보를 확보하고 개인별 유·불리를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별 성적에 따른 위치 파악은 총점 기준 전국 등수가 발표되지 않고, 대학별 성적 활용 방식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이전부터 전국 단위 모의고사 및 모의지원서비스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리부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둬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정한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대와 학생부 유·불리 정도를 비교하고, 장래 목표와 적성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올해 반드시 합격하여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안정과 적정 지원 중심으로, 목표 대학을 최우선으로 재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소신 지원 중심으로 모집 군별 대학을 결정한다.

모의지원

모의지원 내역 활용 가이드 >

지망순위	가군	나군	다군	산업대
등록우선순위 저장 취소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1지망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지원결과 리포트 합격예측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다시계산	모의지원 내역 없음 모의지원 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지원결과 리포트 합격예측
2지망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요류보기	삭제 예정모집단위 확정요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모의지원을 다시 해주세요. 변경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지원결과 리포트 합격예측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지원결과 리포트 합격예측
3지망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요류보기	메가대 경영정보과학부 모의경쟁률 : 3.5 다시계산	모의지원 내역 없음 모의지원 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의지원 내역 없음 모의지원 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망순위 변경 남은기회 : 5 / 30 추가하기 >				

② 나만의 지원 전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

2011학년도 정시 모집은 2010학년도 입시보다 수험생도 증가하였고 탐구 영역의 과목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지원 및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입시 환경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별 전형 방법을 세밀하게 조사, 연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 정도를 수치화해야 할 것이다.

(1) 대학의 전형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자.

- 반영 영역 수 : '3+1' 유형, '2+1' 유형, 특이 유형
-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 : 4개, 3개, 2개, 1개
- 전형 요소 및 영역별 반영 비율
- 가산점 및 지정 과목 유무 여부
- 활용 점수 : 표준점수, 백분위, 표준점수+백분위, 등급

(2) 전형 방법에 따른 유·불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신만의 파일을 만들어라.

- 4개 영역 총점을 기준으로 동점자와 비교해서 자신의 강점 영역과 약점 영역을 파악한다.
-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상대적이다. 다른 학생도 탐구 영역에서 3과목이나 2과목을 선택하면 평균 점수가 상승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상승하느냐에 있다.

사례

표준점수 총점이 535점인 인문계 모집단위를 지원할 000 학생의 유·불리 진단

아래 도표의 성적은 2009학년도 수능시험 실제 성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비고	언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 영역					전체	
				선택1 (한 지)	선택2 (윤리)	선택3 (국사)	선택4 (경제)	사회탐구	총점	평균
표준 점수	나	130 (▲2)	138 (▲4)	133 (▼2)	64 (▼6)	68 (▲8)	64 (▼1)	66 (▲4)	134 (▼1)	535
	동점자	128	137	135	70	60	65	62	135	535
	최고점	134	142	140	77	69	72	81		
백분위	나	98 (▲2)	99 (▲2)	95 (▼2)	91 (▼8)	97 (▲18)	87 (▼2)	93 (▲6)	95 (▲1)	390 (▲6)
	동점자	96	97	97	99	79	89	87	94	384
	최고점	100	100	100	100	99	100	100		

주1) 동점자 점수 : 동점자는 표준점수 동점자, 백분위 동점자가 있지만 위의 표는 표준점수 총점 동점자, 즉 나의 표준점수 총점과 같은 전국 수험생의 영역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 만든 것임.

주2) 탐구 영역 평균 표준점수 = 응시 탐구 영역 과목 표준점수 합 ÷ (응시 과목 수 ÷ 2)

주3) 탐구 영역 평균 백분위 = 응시 탐구 영역 과목 백분위 합 ÷ 응시 과목 수

◀ 내 성적의 강점과 약점 진단 ▶

[강점] 언어, 수리 영역 성적 우수

[약점] 외국어, 탐구 영역 성적이 약함

[진단] 표준점수에서는 동일한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분위 성적에서는 6점이 유리

[결론] 언어와 수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 영역 반영의 비율이 낮은 대학을 우선 고려하고 그 중에서도 탐구 영역을 2과목 이하로 반영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3) 메가스터디 정시 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라.

- 수능 반영 형태와 계산식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 정보 분석과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투는 판단은 불합격으로 이어지거나, 후회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 국내 최대의 수험생 표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추정이나, 획일적 가이드라인은 올해 입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
- 배치 점수 산정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을 program화하여 대학 전형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자동적으로 계산해 준다.
- 모의 지원자 수가 매일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합격 예측 리포트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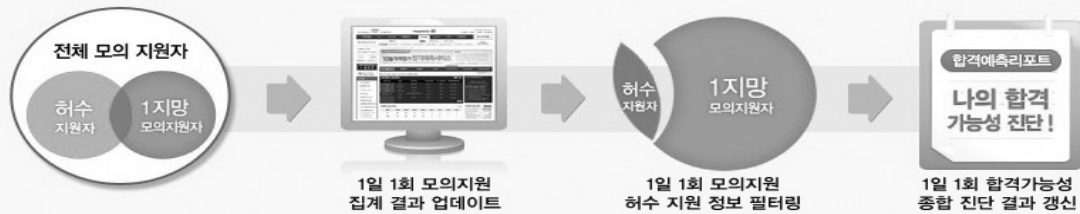
합격예측리포트 확인을 위한 필수 단계!

합격예측리포트는 **합격예측리포트는 각 군별 1지망으로 등록된 모의지원 모집단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격예측리포트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합격예측리포트는 매일 업데이트되어 허수 지원자, 부정확한 성적 데이터 등을 엄격히 선별/제거하여 **한층 신뢰도 높은 합격예측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합격예측리포트에는 아래의 필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1. 2010학년도 정시 실제 합격자 평균 제공
2. 배치컷, 모의지원컷,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 반영된 최종 합격 가능 예상점 제공
3. 합격 가능 예상 인원 및 나의 합격 가능 진단 결과 제공
4. 추가 합격 가능성 제공
5. 우선선발 대상 여부 진단
6. 전년도 정시 실제 지원자들의 지원전략 옛보기 (가,나,다군 지원 전략)



③ 목표 대학의 최근 지원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을 확정하라.

(1) 최근 경쟁률 추이를 점검하라.

2010학년도 정시 경쟁률 상위 학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위 TOP 10에 해당되는 학과는 모두 정시 '다' 군 모집단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군의 특성상 상위권 대학이 적기 때문에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중앙대로 집중되었다. 201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경희대, 서울시립대는 '다' 군 선발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다' 군에서 선발하였던 건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과 같이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률 상위 대학과 반대로 하위 TOP 10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는 '가' 군과 '나' 군 모집단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 중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은 지원 자격이 높았기 때문이며 일부 사범계열의 경쟁률이 다소 낮게 형성되었다.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보면, 자연계열 모집단위이면서 수리 '가' 형을 지정한 대학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표 IV-1] 2010학년도 경쟁률 상위 20위 학과 vs 하위 20위 학과

(서울 소재 대학 기준)

순위	경쟁률 상위 20위					경쟁률 하위 20위				
	대학별	군	계열	모집단위	경쟁률	대학별	군	계열	모집단위	경쟁률
1	중앙대	다	인문	경영학부	80.93	인하대	가	인문	아태물류학부	1.80
2	홍익대	다	인문·자연	서울캠퍼스자율전공	47.21	성신여대	가	인문	윤리교육과	2.00
3	건국대	다	인문	커뮤니케이션학과	41.14	서울교대	나	—	초등교육과	2.20
4	숙명여대	다	자연	생활과학부	40.50	성균관대	가	자연	반도체시스템공학	2.33
5	건국대	다	인문	문화콘텐츠학과	39.00	연세대	가	자연	아동가족학과(자연)	2.33
6	숙명여대	다	인문	경영학부	34.71	총신대	가	인문	역사교육과	2.34
7	홍익대	다	자연	건축학부1	30.83	이화여대	가	인문	스크랜트학부	2.40
8	숙명여대	다	인문	경제학부	30.80	성신여대	나	인문	일어일문학과	2.47
9	홍익대	다	인문	불어불문학과	30.75	한양대	가	인문	국어교육과	2.47
10	홍익대	다	인문	국어국문학과	30.38	가톨릭대	가	인문	특수교육과	2.48
11	건국대	다	인문	상경대학	29.98	고려대	가	자연	건축학과	2.50
12	건국대	다	인문	철학과	29.71	서울시립대	나	자연	교통공학과	2.50
13	홍익대	다	인문	법학과	29.06	연세대	가	자연	기계공학부	2.51
14	건국대	다	인문	사학과	29.00	서울대	나	자연	기계항공공학부	2.53
15	건국대	다	인문	영어영문학과	28.94	이화여대	가	자연	분자생명과학부	2.53
16	숙명여대	다	인문	언론정보학부	28.10	연세대	가	자연	컴퓨터정보공학부	2.55
17	홍익대	다	인문	독어독문학과	27.63	이화여대	가	자연	환경식품공학부	2.56
18	건국대	다	인문	영어교육과	27.60	성신여대	가	인문	교육학과	2.57
19	홍익대	다	인문	경제학부	27.00	경희대(국제)	나	자연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2.63
20	건국대	다	자연	생명과학과	27.00	건국대	나	자연	특성화학부	2.64

(2) 동일 대학이라도 모집 군에 따라 경쟁률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표Ⅳ-2]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다' 군 모집단위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군별 선발 인원은 '다' 군이 '가', '나' 군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 군의 경우 워낙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의 차이는 적어진다. 예를 들면, 건국대 경영학과의 지난해 경쟁률을 보면 '나' 군 모집에서는 111명 모집에 491명이 지원하여 4.4 : 1, '다' 군 모집의 경우에는 49명 모집에 1,336명이 지원하여 27.3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추가 합격자는 '가' 군의 경우 40명(36%)에 불과한 반면, '다' 군의 경우에는 147명(300%)이 빠져나가 실질 경쟁률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다.

[표Ⅳ-2] 2010학년도 분할 모집 대학 경쟁률 비교

대학 및 모집 군	계열	가 군			나 군			다 군		
		모집 인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자	경쟁률
동국대(가·나·다 군)	인문	405	1,973	4.87	361	2,364	6.55			
	자연	466	2,226	4.78	341	1,995	5.85			
성균관대(가·나·다 군)	인문	516	2,589	5.02	296	2,493	8.42			
	자연	592	2,487	4.20	389	1,825	4.69			
건국대(나·다 군)	인문				515	2,778	5.39	269	7,086	26.34
	자연				725	2,890	3.99	378	5,784	15.30

④ 원서 접수가 최종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하라.

- 원서 접수 마감일 차이를 활용하라. (성적이 나쁜 학생은 꼭 활용할 것)
- 지원 가능 대학의 원서를 미리 모두 준비해 두고 특이 사항을 암기해 두자.
- 군별 원서 접수 지원 체제를 갖추어라.
- 결정을 가능한 한 늦게 하라.
- 최종 결정권자를 중심으로 연락 체계를 확실히 갖추어라.

V. 실전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라.

① 지원의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지켜라.

(1) 원칙이 분명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2) 원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 객관적 이해는 지금부터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다.
- 메가스터디 2011학년도 정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분하다.

(3) 원칙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학과냐 학교냐
- ☐ 승 ☐ 무 ☐ 패
- ex) 1승 1무 1패 / 재학생과 재수생은 다르다.(자신의 특수성을 고려하라)
- 최종 결정 시간과 결정권자를 정하라
- ex) 최종 결정 시간 : '가' 군은 22일 오후 4시, '나' 군은 22일 오후 5시, '다' 군은 23일 오후 1시

② 배치표는 참조만! 개별 상담에 의존하지 말라.

- (1) 배치표는 50% 정도만 맞다. 그러므로 배치표는 기준으로 참조하되 자신이 연구·분석 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
- (2) 현행 입시제도 특성상 배치표가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올해 역시 대학 입시요강이 매우 복잡
 -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반영
 - 대학별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 차이
 - 탐구 영역 반영 과목이 4개, 3개, 2개, 1개로 다양
- (3) 스스로 자신이 전문가가 되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라.

③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 (1) 시간대별로 경쟁률 추이를 비교 분석하라.
- (2) 메가스터디가 올해 입시의 축소판이다. 수험생들의 지원 동향을 파악하라.

· 메가대 가정교육과(인문)의 2010학년도 정시 실제지원자들의 타군 지원결과

▼ 합격자 | ▼ 불합격자

지원 case	구분	가	나	다	산업대
1	지원대학	메가대 가정교육과	서강대 국제문화계I	중앙대(서울) 자유전공학부	
	합격여부	합격	합격	불합격	
2	지원대학	메가대 가정교육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인류·지리학과 군	세명대 한의학과	
	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불합격	
3	지원대학	메가대 가정교육과	서울교대 초등교육(여)	중앙대(서울) 자유전공학부	
	합격여부	합격	합격	불합격	
4	지원대학	메가대 가정교육과	경희대(서울) 경영학부	건국대(서울) 상경대학 상경대학	
	합격여부	합격	합격	합격	
5	지원대학	메가대 가정교육과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한국외대(서울) 자유전공학부	
	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불합격	

(3) 전년도 내지 지난 2~3년간의 변화 추이를 읽어내라.